



반도체 자존심 회복 영업익 10조 넘었다

삼성전자 2분기 ‘깜짝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10조원대 영업이익은 7분기만이다. AI 수요의 강세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6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31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4조683억원, 10조443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23.44%, 1462.29% 증가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전망한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73조7160억원, 영업이익은 8조2288억 원이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IT 시황이 회복되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대폭 상승했다”며 “모바일(MX)부문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이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매출 74조, 영업익 10.4조 집계
AI 혼풍에 DS 영업익만 6조 넘어
시스템LSI 상반기 매출 ‘신기록’
DX부문 매출 42조, 영업익 2.7조

◆반도체 영업익만 6조 “전체 영업익 61% 차지”

이번 호실적은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부문의 실적을 크게 개선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을 맡는 DS부문은 2분기 매출 28조5600억원, 영업이익 6조45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DS부문 비중은 61.8%에 달한다.

메모리는 생성형 AI 서버용 제품의 수요 강세에 힘입어 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동시에 기업용 자체 서버 시장의 수요도 증가하며 DDR5와 고용량 SSD제품의 수요가 확대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DDR5 ▲서버SSD ▲HBM 등 서버 응용 중심의 제품 판매 확대와 생성형 AI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해 실적이 전분기 대비 대폭 호전됐다.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74조683억원, 영업이익 10조4439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뉴시스

또 업계 최초로 개발한 1b나노 32Gb DDR5 기반의 128GB 제품 양산 판매를 개시해 DDR5 시장 리더십을 강화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 신제품용 SoC(System on Chip)·이미지센서·DDI(Display Driver IC) 제품 공급 증가로 실적이 개선돼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파운드리링는 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5나노 이하 선단 공정 수주 확대로 전년 대비 AI와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 고객수가 약 2배로 증가했다.

또 GAA 2나노 공정 프로세스 설계 키트 개발·배포를 통해 고객사들이 본격적으로 제품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2나노 양산을 위한 준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DX 영업익 2조 “스마트폰 사업 감소·가전은 상승”

모바일과 생활가전 등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X)부문은 매출 42조700억원, 영업이익 2조7200억원을 달성했다.

이 중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MX부문은 2분기 매출 27조3800억원, 영업이익 2조23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시장 비수기가 지속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모델이 출시된 1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갤럭시 S24 시리즈는 2분기와 상반기 출하량·매출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3면에 계속>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10억로또’ 원펜타스, 현금부자 13만명 몰려

서울·수도권 중심 청약 광풍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줍줍’에
300만명 접수… ‘역대 최대’ 기록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300만명이 몰리며 청약 시스템이 마비되는가 하면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어도 일단 10억원 안팎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 강남 아파트에도 13만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전용면적 84㎡ 1세

대에 대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 4780명이 접수했다.

청약 신청자로 보면 역대 최대 기록이다. 앞서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01만 3456명이 신청한 바 있다. 무순위 청약 1가구를 대상으로는 동작구 ‘흑석자이’에 82만9804명이 접수한 게 최대였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 위해 수백만명이 일시에 몰리며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도 빚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을 운영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동탄역 롯데캐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당초 29일 하루 접수에서 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동탄역 롯데캐슬이 수백만명의 관심을 끈 것은 지난 2017년 당시 분양가로 청약이 진행되면서다. 전용 84㎡의 44층 1세대의 분양가가 4억8200만원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평형이 올해 6월 1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시세차익만 10억원 안팎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한 조건이 없는 것도 한몫을 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지역도 전국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 일반분양 역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았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센강에 뛰어드는 트라이애슬론 선수들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서 2024 파리올림픽 철인 3종(트라이애슬론) 여자부 개인전 경기가 열려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수질 문제로 연기됐던 트라이

애슬론 경기가 이날 여자부에 이어 남자부도 열린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1.5km, 사이클 40km, 러닝 10km 순서로 치르는 경기로 올림픽에서 가장 힘들다는 종목이다.

AP/뉴시스

‘IPO 단계별 수수료’ 시행… 실효성은 글썽

증권사-예비상장기업 관계 우려
상장 심사 재청구 협력 가능성도

8월 1일부터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주관증권사는 상장(계약해지)에도 그간 해운 업무에 대한 단계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런 지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업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 등이 내놓은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안에 따른 조치로, 바뀐 인수업무 규정에 따라 증권사들은

1일부터 내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눈여겨본 내용은 상장하고자 하는 예비상장기업(발행사)의 IPO가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 주관사가 수수료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주관증권사는 예비상장기업이 IPO에 성공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즉, 주관사들은 기업 실사나 분석을 하는데 공을 들였어도 해당 예비상장기업이 IPO에 실패하면 그간의 수수료는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후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주관사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과 현업에

서 중간 수수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파주 뽕튀기 상장’ 논란을 금융당국이 ‘무리한 상장 시도’로 해석하면서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IPO를 준비하는 증권사들은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예비상장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주관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실제로 IPO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김문수 “노란봉투법, 세계 입법 사례 없어”
▲ “검사탄핵 청문회” 내달 14일 실시…여 “근거 부족” 야 “조사하면 알 것”

▲ “전국민 25만원” 겨냥?…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증증”
▲ 한동훈,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 요건 강화해야



▲ 박찬대, 이진숙 임명에 “국민 우롱… 윤 방송장악 독재 망상 접어야”
▲ “수사 받은 피의자가 명예전역이라니”… 임성근 전역 반대 서명운동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논란

“이사 충실의무 확대” vs “경영 일선 혼란초래”

〈더불어민주당〉

〈재계〉

정재계, 기업가치 제고 방안 강구
더민주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경제단체 “경영권 공격수단 악용”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가운데, 재계는 선부른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의 경영권을 훼손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7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해 자본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

익이 침해되더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선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알짜 사업 분야를 몰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해 기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들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찬성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반대하는 “주주 간 이해충돌의 문제를 불완전한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째 원인”이라며 “지난 30여년 동안 합병, 분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지분율이나 지분 가치가 축소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왔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당한 자본거래가 계속되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회사법 체계 훼손 ▲국제적 기준에 위배 ▲현행법으로 입법 목적 달성 가능 ▲경영일선 혼란 초래 ▲사법리스크 증가로 기업이 정신 위축 등을 이사 충실 의무 확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될 경우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들이 내리는 정당한 의사결정을 모두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왜곡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 소액주주의 주주 가치 실현 효과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고 현행 법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일반주주 보호와 대주주 견제, 이사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현행법 유지를 요청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경영진 사이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에 달했다. 그러나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계획을 재검토’(34.5%) 또는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55.2%였고,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업은 8.6%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1면 ‘10억 로또 원펜타스…’서 계속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안상미 기자

평당 6736만원… 반값 수준

특히 강남의 낮은 전세가율을 감안해 바로 임대를 놓아도 10억원은 들고 청약에 나서야 하지만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청약함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 청약이 전일 전 평형 1순위에서 마감됐다. 178세대 모집에 9만3864명이 접수했다. 앞서 특별공급에 청약한 4만183명을 감안하면 총 청약자는 13만4341명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59㎡ B타입이 16세대 모집에 2만5678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1604대 1로 가장 높았고, 59㎡ A와 59C 타입도 1000대 1을 웃돌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신반포15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규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대거 쏠렸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6736만원이다. 최근 집값이 들쭉이면서 로또를 넘어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가 17억4610만원, 84㎡가 23억3310만원이다. 작년에 입주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59㎡가 지난 달 30억6000만원에, 아크로리버파크가 3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는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달 50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1면 ‘IPO 단계별…’서 계속

자율 책정… “큰 금액 어려워”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간에 상장이 취소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증권사들에도 좋겠지만, 상장을 주관하고 싶어 하는 증권사들은 많기 때문에 되도록 계약 해지가 아니라 상장심사 재청구 쪽으로 발행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해지가 되어서 수수료를 책정한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책정 과정이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으로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주관사와 발행사가 협력해 상장심사를 재청구하거나, 수수료를 실제로 받더라도 발행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정선에서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업계가 IPO 과정에서 발행사와 이해관계 때문에 수고를 하고도 상장이 취소되면 수수료를 못 받아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상장이 무산돼도 수수료 같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주관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좀 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예비상장기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국내 생산 2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 건설·의약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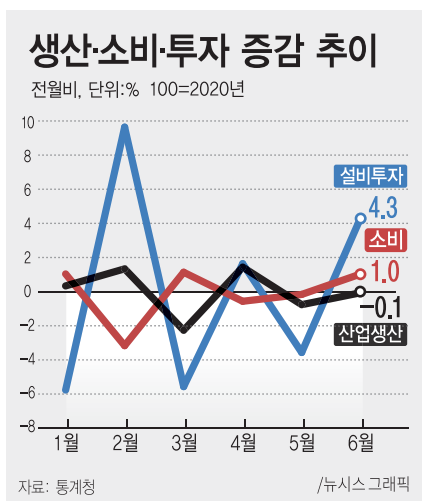
통계청 6월 산업활동동향

반도체 생산 7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국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든 반면 투자와 소비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6월 반도체 생산이 7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음에도 건설 부문 등의 부진이 전체 생산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내수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반등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준)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5월에 비해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등 4개월째 증가했



지만 3월 2.3% 감소로 돌아섰다. 4월(1.4%) 들어 다시 증가했지만 5월(-0.8%)과 6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 건설업에

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2%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석유정제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는 전월대비 8.1% 늘어나며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계절조정지수(163.4)로는 198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전년 대비로는 26.9% 늘었다. 화학제품(1.2%), 기계장비(1.0%) 등의 생산도 늘었다. 그러나 의약품(-11.7%), 석유정제(-4.1%), 식료품(-2.9%) 등에서 감소세가 컸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소비는 지난해 12월(0.5%), 1월

(1.0%)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했다. 이후 4월(-0.6%)과 5월(-0.2%)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8.3%), 의복 등 준내구재(-3.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감소했다. 2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9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4.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달 4.3%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 지명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고,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 내정 소식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1970~19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3선 국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진숙
신임 방통통신위원장

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 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

익향상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지사를 두차례 역임해 GTX 신설 발표 등 공약이행 평가에서 1위를 했고, 최근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차세대 메모리 개발 박차… “내년 하반기 HBM4E 출하”

〈고대역폭 메모리 6세대〉

삼성전자 2분기 ‘깜짝실적’

3분기 중 HBM3E 8단 제품 양산
하반기 HBM 매출 5배 확대 전망
“고용량 제품 기반 경쟁력 강화”

“고대역폭 메모리(HBM) 5세대인 HBM3E 8단 제품은 3분기 중 양산 공급을 본격화 한다.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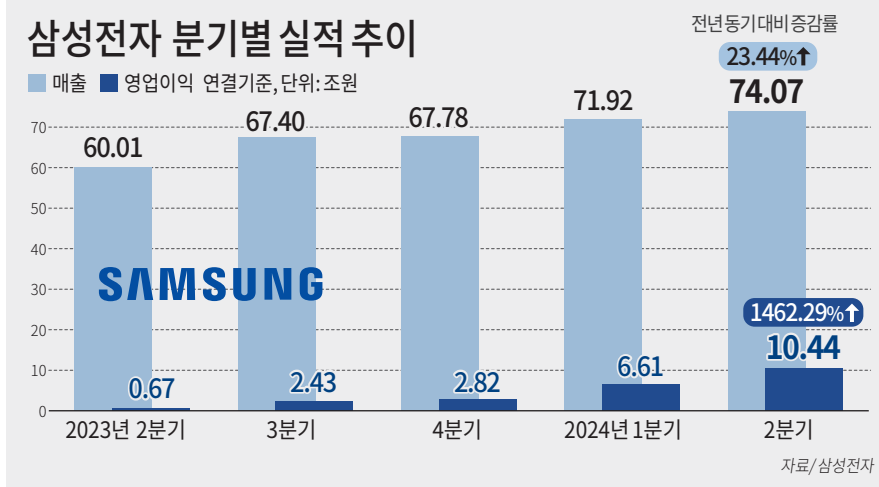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31일 올 2분기 실적이 7분기 만에 처음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컨퍼런스 콜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들로부터 HBM3E 쿼(품질) 테스트 통과 또는 공급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삼성전자는 이날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조 44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2.2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74조 6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4% 늘었다.

이번 호실적은 고대역폭메모리(HBM) 4세대 제품인 HBM3 매출이 3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떠받들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3분기 내 5세대 제품인 HBM3E 양산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HBM매출 5배 확대…“HBM 4E 개발 중”

김재준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컨콜에서 “HBM3E 8단 제품은 3분기 중 양



산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업계 최초로 개발 및 샘플 공급한 HBM3E 12단도 이미 양산 랩업 준비를 마쳤고 복수의 고객사들 요청 일정에 맞춰 하반기에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날 차세대 HBM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SK하이닉스와 본격적인 경쟁구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는 HBM 매출이 5배 가량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당사 HBM 내 HBM3E의 매출 비중은 3분기 10%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에는 60% 수준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분기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2배 수준의 가파른 증가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3.5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세대인 6세대 HBM4E도 순조로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그 다음 세대인 (6세대) HBM4E의 경우 내년 하반기 출하를 목표로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성능을 고객별로 최적화한 커스텀 HBM 제품도 함께 개발 중이며, 현재 복수의 고객사들과 세부 스펙에 대해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파운드리 매출 9배 확대…“노조 파업 물량 문제 없어”

삼성전자는 향후 서버용 D램 분야에서도 고용량 제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낸드의 경우 서버·PC·모바일 전 분야에 최적화된 퀴드레벨셀(QLC) SSD 라인업을 기반으로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 서버용 SSD 매출은 ASP 개선, 출하량 증가, 프리

미엄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에도 가파른 실적 개선이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4배를 넘어서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프리미엄 제품인 트리플레벨셀(TLC) 기반의 16테라바이트 이상 SSD 판매는 올해 급격히 증가해 하반기 매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오는 2028년까지 AI와 고성능컴퓨팅(HPC) 응용처용 고객 수를 4배, 매출을 9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반기 시장은 경기 회복에 따라 세트

업체들의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AI, HPC용 수요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파업과 관련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노조와 지속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노조 파업이 지속되더라도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metroseoul.co.kr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DS·디스플레이 부문 등 12조 시설투자

▶▶ 1면 ‘반도체 자존심 회복…’서 계속

TV 사업을 맡는 VD부문은 글로벌 대형 스포츠 이벤트 특수에 힘입어 선진 시장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했다. 생활가전은 성수기에 접어든 에어컨 제품 매출 확대와 비스포크 AI 신제품 판매 호조로 실적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은 매출 3조 6200억원, 영업이익 3200억원을 올렸다. 포터블과 TWS(True Wireless Stereo) 중심의 소비자 오디오 제품 판매 확대도 실적이 개선됐다.

삼성 디스플레이(SDC)는 7조 6500억원, 영업이익 1조 1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플래그십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리지드(Rigid) 판매 기반 강화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하여 실적이 개선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2분기 시설투자액으로 12조 100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DS부문 9조 900억원, 디스플레이 1조 800억원 수준이다. 전분기 대비 8000억원 가량 늘었다. 앞으로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및 R&D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이통3사, 성장세 ‘주춤’… AI 기반 신사업 사활

통신시장 정체기… 수익성 악화
IT·DX 사업 등 탈통신 전략 가속

통신 3사(SKT·KT·LGU+)의 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다만 본업인 통신시장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비통신 사업으로 ‘탈통신’ 전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3303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 3283억원) 대비 3.3%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통 3사는 지난 2022년 이후 작년 4분기를 제외한 매분기마다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본업인 통신사업을 탈출해 신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주요 사업인 유무선 통신 매출 성장률이 1% 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시장 포화, 5G 요금제 가입자 급감
통신 3사의 지난 2분기 약 1~3%대 매출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별 2분기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4조 428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작년 2분기보다 2.84%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4981억원으로 7.49% 증가하며 3사 중 유일하게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KT는 지난 2분기 매출 6조 6578억원을 기록해, 작년 2분기보다 약 1.69% 성

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761억원에서 5359억원으로 약 6.98%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 5387억원으로 작년 2분기 3조 4293억원보다 3.19%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2550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11.44% 줄었을 것이라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수익 악화의 주요원인은 통신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수익성이 높은 5G 요금제 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G 상용화로 LTE 가입자가 요금제를 전환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으나 최근 5G 가입자 비중이 60~70%까지 높아지면서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맞춰 신설한 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과 다양한 저가 요금제도 수익성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초부터 정부가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며, 통신 3사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30만원 가량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통3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맞손 “신사업 사활”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통신 사업 대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B2B(기업간거래) 서비스로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임직원 대상 타운홀미팅을 열고 AI 사업 전략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OI) 방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AI 컴퍼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SKT는 글로벌 AI 기업과 손을 맞잡고 신사업을 개척하는 데 힘 쏟고 있다. 유 대표는 “지난 3년간 AI 파라미터 전략을 구체화했고, 이제는 AI로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라며 “AI 데이터센터(DC)를 비롯한 AI 신성장 사업 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통신사 사업모델(BM)의 AI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IT와 AI를 더한 ‘AICT 컴퍼니’를 목표로 세우며 빅테크 분야의 기업과 맞손을 잡았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와 AI·클라우드·IT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식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 겸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지난 1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AI를 성장해법으로 지목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새 브랜드 슬로건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를 공개한 데 이어 자체 생성형 AI ‘익시젠’을 출시하는 등 AI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돌입했다.

/구남영 기자

상반기 국세수입 168.6조… 법인세 급감

기재부 6월 국세수입현황

전년 동기대비 9조 9800억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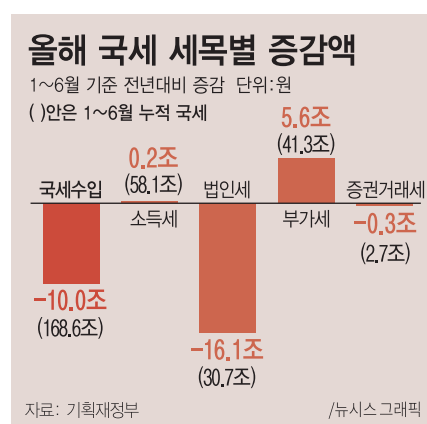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흐름이 하반기엔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31일 펴낸 ‘6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 9800억 원(5.6%) 감소했다.

6월 수치만 봐도 세수는 17조 5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000억 원(4.7%) 덜 걷힌 상황이다. 특히,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기준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2024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견힐 것으로 예상했던 367조 3000억 원 중 절반도 채 걷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년 동월 44.6%보다는 1.3%p 포인트 높다.

통계에 따르면 급감한 법인세가 국세수입 감소의 주 원인이었다. 법인세는 6월 누계기준 30조 7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조 1000억 원(34.4%)이 나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소득세는 58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했으나, 성실신고사업자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41조 3000억 원으로,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5조 6000억 원(15.7%) 증가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 2000억 원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어든 2조 7000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업 실적 호전의 영향으로 하반기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다음 달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검토하고, 올해 세수 결산 규모와 재추계 등의 발표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삼성 플립6에 도전장’… 가성비 앞세운 글로벌 폰 쏟아진다

애플·중 등 경쟁력 내세워 시장 선점
2026년 ‘아이폰 폴더블’ 출시 전망
모토로라, 99만원 ‘레이저 50 울트라’
샤오미, 얇은 폰 ‘믹스 플드4’ 선포

삼성전자가 선점한 인공지능(AI) 폴더블폰 시장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AI 폴더블 폰인 갤럭시Z6를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지만 주요 경쟁사였던 애플에 이어 중국 스마트 업체들은 물론 모토로라까지 합세한 것.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폴더블폰 가격은 Z6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AI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시장조사 전문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6.4%였다. 세계 최초로 AI폰 시장을 연 삼성은 갤럭시S24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 2개 분기 연속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6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Z폴드6·플립6’를 출시하며 AI 폴더블 폰 시장을 장악하고 나섰다. 처음 공개한 AI폴더블인만큼 AP를 변경해 AI기술력도 향상 시켰다. 갤럭시 S24 울트라에 탑재한 AP와 동일한



모토로라 ‘레이저 50 울트라’.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3세대’를 사용하며, 원활한 AI 기능을 지원한다. 이에 Z폴드6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갤럭시Z6 시리즈의 국내 사전 판매는 91만대였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매출이 올해 2028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해 전 세계 점유율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삼성이 AI 폴더블 폰을 공개한 직후 애플은 물론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모토로라까지 가격 경쟁력을 내걸고 시장 경쟁에 참여했다.

먼저 애플은 이르면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애플이 이르면 2026년 폴더블 형태의 아이폰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애플이 내부 코드명 ‘V68’로 불리는 폴더블 아이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경쟁사인 애플의 AI 폴더블폰 진출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삼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모토로라까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걸고 시장 선점에 나선다.

먼저 모토로라는 AI를 탑재한 폴더블폰을 플립6의 절반 수준의 가격에 출시할 전망이다.

업체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다음달 중 AI 폴더블 폰인 레이저 50 울트라



플립형 폴더블 아이폰 상상도.

국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늦어도 8월 초까지 출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유통 채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내 이동통신사와 이커머스를 통한 자급제 기기 판매 등이 모두 이뤄질 전망이다.

레이저 50 울트라 국내 출고가는 99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작인 레이저 40 울트라 출고가인 129만9000원과 비교하면 약 24% 저렴해졌다. 미국 시장 출고가인 999달러(약 138만원)와 비교하면 국내 판매가는 더욱 낮은 수준이다.

특히 레이저 50 울트라 가격은 삼성전자의 플립6 출고가인 148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가격은 약 3분의 2 수준이다. 여기에 레이저 50 울트라는 이 같은 저렴한 가격에 더해 AI까지 탑재

하고 있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본격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와 화웨이도 연이어 AI폴더블 폰을 출시하고 있다.

샤오미는 차세대 폴더블폰 신작 ‘믹스 플드4’를 선보였다. 믹스 플드4 두께는 Z폴드6보다 얇다. 믹스 플드4도 갤럭시Z 폴드6와 마찬가지로 AI 기능을 탑재했다. AI 이미지 인식으로 사진을 해석·편집할 수 있고 AI 요약 기능을 활용해 문서를 손쉽게 요약한다. 영상 제작이 가능한 AI 편집 기능도 갖췄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6 판매가 정식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더 저렴한 제품을 내놔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스펙에 따르면 노바 플립은 6.88mm의 얇은 두께에 화웨이의 자체 하모니OS 및 치린 5G 칩, AI, 그리고 5000만 화소의 후면카메라를 갖췄다. 상세한 사양과 가격은 내달 5일 저녁 정식으로 공개된다. 노바 시리즈가 중저가형 라인인 만큼 포켓 시리즈 보다 저렴한 가격의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이 될 전망이다.

박진석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는 “최근 AI 기술 트렌드가 주변기기 혹은 같은 브랜드 내 연계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이는 데 따라 삼성 역시 기존 AI 기능에 더해 연관 기기와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의대생, 5중 3명 ‘수도권 의사’… 울산·강원 절반이상 지역 떠나

전체 의대생 47% 서울 병원에 취업
비수도권 의대생 60~80% 지역 이탈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의대생 5중 3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취업한 의대생은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생들의 ‘졸업 후 탈지역’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 지역 의대는 졸업생 중 3%만이 해당 지역 의사로 남기도 했다.

정부가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증원했지만, 그 지역에 정주하도록 추가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진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2년까지 의대 졸업생 9807명 중 58.4%에 해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관련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뉴스시스

당하는 5730명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중 서울 지역 취업자는 4550명(46.4%)이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은 2488명인 점에 비춰 보면, 다른 지역 의대 출신 상당수가 서울 소재 병원에 취업한 셈이다.

학교 소재지별로 ▲서울 2678명(90.2%) ▲인천 74명 (91.4%) ▲경기 223명(93.3%)이 수도권으로 취업했다.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울산 지역 의대생의 80.5%(149명)가 지역을 이탈해 수도권으로 취업하며 지역 이탈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665명

(65.6%) ▲충남 370명(60.1%) ▲전북 311명(44.6%) 이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2018년 55%에서 2022년 60.7%로 증가했다.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1개 지역에서 높았으며, 줄어든 지역은 부산, 대전, 충북 단 3곳에 불과했다.

의대 졸업생 가운데 자신이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북은 17명(3.3%), 울산 16명(8.6%)에 불과했다. 경남, 강원, 충남지역도 각각 77명(19.6%), 214명(21.1%), 194명(31.5%)으로 낮았다.

이런 현상은 지역 의대가 지방의대로 인가받고 교육병원 소재지가 수도권

에 위치해 학사 운영이 수도권에서 이뤄진 것이 원인 중 하나다. 예컨대, 울산대의대의 교육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실제 지난 5년간 졸업생 185명 중 144명(77.8%)이 서울로 취업했다. 울산 지역 병원에 취업한 졸업생은 16명에 그쳤다.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 인력을 배치·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전국 미분양 주택 7만4000호… 7개월 연속 증가

악성 미분양 1만4856호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에도 쌓이면서 7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4037호로 전월 대비 2.6%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다. 작년 12월 말 6만호를 웃돌았으며, 올해 들어 4월에는 7만호대로 늘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856호로 전월 대비 1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5051호로 전월 대비 2.0%, 지방이 5만8986호로 전월 대비 2.8%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기준 인허가는 14만986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3만1528호, 비(非)아파트 1만8332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5%, 35.8% 줄었다.

누적 기준으로 착공은 12만7249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11만2495호로 전년 동기 69.3% 증가했고, 준공도 21만9560호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전월 대비 2.9% 감소한 총 5만 5760건으로 집계됐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는 31만7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이 19.1%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총 19만 2738건으로 전월 대비 15.4%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K하이닉스 르네상스의 원년을 만드는
ONE TEAM PLAY

SK하이닉스 4만여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글로벌 No.1 AI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법사위, 野 주도 ‘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

與 “민생회복지원금, 헌법 체제 반해”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기권 던져
정청래 “의사결정 방법, 다수결”
검사 탄핵소추안도 표결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31일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전처리 및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안전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청에도 안전 토론 종결 동의를 건을 표결해 처리했다.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명백하게 헌법 체제에 반한다”며 “재정 권한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에 나눠져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 국회는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조원 현금 살포법에선 지급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예산 편성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 법 자체로 확정되는 효과를 갖는다”며 “처분적 법률로 불리우는데, 우리나라 체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곳으로 계속 가다보면 식물 국가나 비생산물 국가가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49조에서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한다”면서 “압

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야당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정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표결해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정 위원장 의장석을 둘러싸며 항의했으나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진 않았으나 안전 표결에 기권 의사를 던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법률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불법헌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4명의 검사 탄핵안 중 하나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한 근거로 언론보다 4건이 제시된 것을 두고 “탄핵에 대한 무게감이 22대 국회 들어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다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되면서,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대표 임면권 갖는 당직자 일괄 사퇴 요청”

정점식 정책위의장 자진사퇴 압박
尹, 인선 관련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
친한계로 교체 시 친윤 보다 많아져

서범수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이 31일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갖는 당직자에 대해서 일괄 사퇴해달라는 한동훈 당 대표의 의견을 전하며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사퇴를 공개 압박했다. 당직 일괄 사퇴 압박은 전날(7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나 당직자 인선과 관련해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발언 이후 이뤄졌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한 대표가 일괄 사퇴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모양새 갖추는게 안 맞겠냐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에 대한 임면권이 있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도 인선할 수 있다.

최근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정책위의장은 친윤석열계의 핵심 인사로 주요 당직을 맡은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친윤석열계 5명(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원요한·김민전 최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인 반면, 친한계는 한동훈 당 대표,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3명에 당 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더해야 4명이 된다.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 후 친한동훈계 인사로 교체를 하면 최고위 구성에서 친한동훈계가 친윤석열계보다 숫자가 많아진다.

사실상 공개 사퇴 압박을 받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아야 임명하는 직책인 만큼, 잡음 없이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부분이 관건이다.

서 사무총장은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을 당사에서 만났다고 확인해줬다. 서 사무총장은 “(정 정책위의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때문에 보고하러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추후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일괄사퇴서를 받아보고 정리해야하지 않겠냐”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 체제에 힘을 실으며 연일 ‘화합’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 요소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날 한 대표와의 독대에서 정책위의장 유임·교체 여부 등 당직 인선

에 대해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 폭넓게 포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회동에서) 당직 개편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했다”며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정비되면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하자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당 대표가 됐으니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폭넓게 포용해서 한 대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서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대표는 “대통령님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임명하더라도, 친윤계가 반발할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전망이나 온다.

/서예진 기자 syj@

尹, 이진숙 임명 강행… 野 탄핵안 예고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엔 김태규 임명
2인체제로 안건이결 불법성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돌아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해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회에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를 당일 기한으로 요청했고, 기한이 지나자 이날 오전 지체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날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임명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명 방통위’ 사태를 벗어났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취임식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중점 과제로 ▲공영방송 공공성·공정성 재정립 ▲미디어·콘텐츠 혁신성장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공익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돌아오면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완료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 임명에 즉각 반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첫 출근을 하자마자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안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씨는 방통위원장직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이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통위가 2명으로만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회의 소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일(1일) 민주당과 야5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이에 1일 발의하고, 같은날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 세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에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삼성카드, 건전성 관리로 ‘업계 1위’ 톱밀 추격

상반기 순익 3628억… 25% ↑
‘업계 선두’ 신한과 165억 격차
지난해 동기대비 36.78% 줄어
하반기 데이터사업 경쟁력 강화

삼성카드가 2분기에 호실적을 거두면서 ‘업계 1위’ 신한카드와 격차를 줄였다. 지난해 업황악화로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카드는 362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2906억원) 대비 722억원(24.8%) 증가하면서 깜짝실적을 거뒀다. 영업수익은 1조9993억원으로 연간 2.2% 오르는 데 그쳤지만 대손충당금을 크게 줄인 효과다. 상반기 삼성카드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3161억원이다. 전년 상반기(3716억원) 대비 14.9% 감소했다.

삼성카드는 연체율 관리에 공을 들인 데다 차입금 만기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올 상반기 삼성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0.99%다. 전년 동기 대비



서울 세종대로 삼성카드 사옥. /삼성카드

0.11%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말 1.18%까지 상승했지만 직전 분기를 시작으로 내림세다. 신규 연체율은 지난 1분기에 이어 0.5%를 기록했다.

대손비용률은 2.2%다. 직전 분기(2.7%) 대비 0.5%p 떨어졌다. 각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3년 3분기(1901억원) ▲2023년 4분기(1582억원) ▲2024년 1분기(1753억원) ▲2024년 2분기

(1408억원) 순이다. 분기별 등락을 나타내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차입금 포트폴리오도 개선했다. 회사채·장기 기업어음(CP) 비중은 77.8%로 6개월간 0.4%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7%에서 20.8%까지 늘렸다. 반면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일반대출은 2.2%p 줄어든 1.4%며 단기사채에서는 손을 댔다.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카드의 조달잔액은 17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말(17조6000억원) 대비 1.7% 줄었다.

채권잔고는 연간 1000억원 감소한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용판매 비율은 0.9%p 줄어든 70%를 차지한다. 할부·리스(3.4%)와 현금서비스(3.7%) 비중은 각각 0.2%p, 0.4%p씩 떨어졌다. 반면 카드론 비중은 1.5%p 상승한 22.9%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비용 줄이기와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상반기 호실적은 건전성 관리를 철저하게 한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신한카드

와 차이를 좁혔다. 업황악화를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상반기 순이익 격차는 16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261억원) 대비 36.78% 줄었다.

카드업계 호황기에 신한카드는 독주를 이어가면서 삼성카드와의 간격을 벌렸다. 지난 2020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상반기 순이익 격차는 799억원이었다. 다음 해에는 850억원까지 벌어졌다. 신한카드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둔 지난 2022년에는 968억원의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데이터 사업 경쟁력 확보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선다. 삼성카드는 데이터 플랫폼인 ‘블루 데이터 랩(BLUE Data Lab)’을 공개하고, 세빌스코리아와 아모레퍼시픽 등과 데이터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카드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자산건전성 관리와 효율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인기 캐릭터 카드로 고객사 ‘잘파세대’ 유치 지원. /비씨카드

비씨카드-iM뱅크

잘파세대 맞춤형 혜택 캐릭터 적용 카드 선택

비씨카드가 청년층 공략을 위해 캐릭터를 적용한 카드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캐릭터 카드, 잘파세대 ‘정조준’

비씨카드는 ‘폴티즈 앤 리트리버’ 캐릭터를 적용한 ‘iM A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iM뱅크와 협업을 통해 개발했다. 카드 플레이트는 ▲맹라이프 ▲맹크라이 ▲맹맹맹 등 3종으로 구성했다.

잘파세대 맞춤형 카드혜택을 탑재했다. 온라인쇼핑과 편의점,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5% 할인을 제공한다. 이어 커피전문점과 정기구독 서비스 업종은 할인율은 10%로 책정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신한중앙회와 함께 청소년 특화 ‘신협 100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100’은 ‘귀여워’의 초성을 반영했다. 유쾌어나 줄임말을 자주 쓰는 잘파세대 특성을 담았다.

김호정 비씨카드 상무는 “향후에도 젊은 고객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 카드를 출시하고 마케팅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한카드-신보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캐시백·경품증정 행사

신한카드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침체하고 소외된 상권을 지원한다.

◆침체한 상권에 ‘활기’

신한카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8월 1일부터 4개월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굴한 소규모 상권 2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 쿠폰을 제공한다. 가맹점은 4000여곳이다.

쿠폰은 신한솔(SOL)페이 앱 내 ‘마이샵’ 페이지에서 수령할 수 있다. 2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돌려준다. 대상 상권은 마이샵 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한 달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24곳 이상 상권을 방문한 고객 1명을 추첨해 10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어 상권 12~23곳을 방문한 고객 중 2명을 추첨해 5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골목상권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탄탄한 배후수요 증가 기대… 대중교통·인프라는 아쉬워

부동산 현장 르포

성남 ‘판교밸리자이’

단지 3km 내 1·2 테크노밸리 위치
오피스텔-아파트 단지 생활권 공유

“이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 확장의 최대 수혜지역이다. 단지에서 3km 이내에 판교 제1, 2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고 제3테크노밸리도 조성 예정이다. 해당 부지 내에 공공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플래닛’이 들어서면 앞으로 수요는 더욱 몰릴 것이다.”

31일 찾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지구에 위치한 ‘판교밸리자이’. 단지 인근 분양사무소 직원 A씨는 미래 비전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교밸리자이는 아파트 전용면적 60~84㎡ 350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59~84㎡ 282실로 구성돼 있다. 지하 2층~지상 14층 3개동 규모다. 지난 2021년 1월 분양해 지난해 2월 입주했다.



판교밸리자이 정문. /전지원 기자

지난 30일에는 오피스텔(2단지) 5가구의 청약이 진행됐다. ▲59㎡ A타입 2가구 ▲84㎡ A타입 1가구 ▲84㎡ B타입 2가구가 나왔고 분양가는 각각 59㎡ 7억5700만원, 84㎡ 10억500만~10억6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단지는 지난해 7월 전용면적 60㎡가 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가격이 높은 편임에도 84㎡ A타입은 14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A씨는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 단지와 생활권을 공유한다”며 “오피스텔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막상 와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잔금을 치르지 못한 아파트 1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와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4년 전 가격으로 나와 3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

들이 몰린 것.

반면 대중교통은 부족한 편이었다. 판교밸리자이에서 가장 인접한 역은 수서역이다. 역으로 가는데 버스로 20분 정도 소요됐다. 배차간격은 최대 25분이다. 판교현대백화점까지는 버스로 35분 걸렸고 배차 간격은 최대 30분이다.

인프라도 아쉬웠다. 단지 앞에는 아직 상가가 모두 들어오지 않아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다.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문화시설 등도 없었다.

또다른 분양사무소 직원 B씨는 “인근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차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중교통편이나 인프라는 아쉬울 수 있지만 교통편 자체는 좋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고속도로 등이 고등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며 “강남, 송파 등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교밸리자이 2단지 청약 당첨자는 8월 2일 발표된다.

/전지원 기자 jiw13@

6월 주담대 금리 3.71%… 8개월째 하락

고정형 연 3.69%, 변동형 연 4.2%
저축성 수신금리도 0.04%p 하락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3.71%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11월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던 시기로, 낮아진 주담대 금리가 내집마련 욕구를 자극시켜 또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6%로 한달 만에 0.23%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금리는 연 3.71%로 2023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떨어졌다.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은행채(AA·A·5년물) 금리가 전달보다 0.24%포인트(p)

내리면서 전달보다 0.2%p 하락한 연 3.69%를 기록했다. 변동형 금리도 코픽스 금리가 0.04%p 내리면서 0.06%p 하락한 4.2%로 집계됐다.

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코픽스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담대 중 고정형의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주담대 중 고정형을 선택한 비중은 94.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연 3.84%로 한달전과 비교해 0.06%p 낮아졌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

다. 신용대출은 연 6.04%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7%p 내렸다.

아울러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의 예금금리도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5월 연 3.55%에서 6월 연 3.51%로 0.04%p 낮아졌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고객이 받는 금리를 통칭한 것으로, 일반적인 예·적금 금리를 뜻하는 순수저축성예금과 채권상품을 뜻하는 시장형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나유리기자 yul15@

전력반도체 기업, ‘전기車 캐즘’ 돌파구로 ‘AI 붐’ 낙점

(일시적 수요 정체)

전기차 시장, 최대 75% 비중 차지
성장률, 전년대비 16.9%p 감소 전망
AI 훈련 전력소모량은 계속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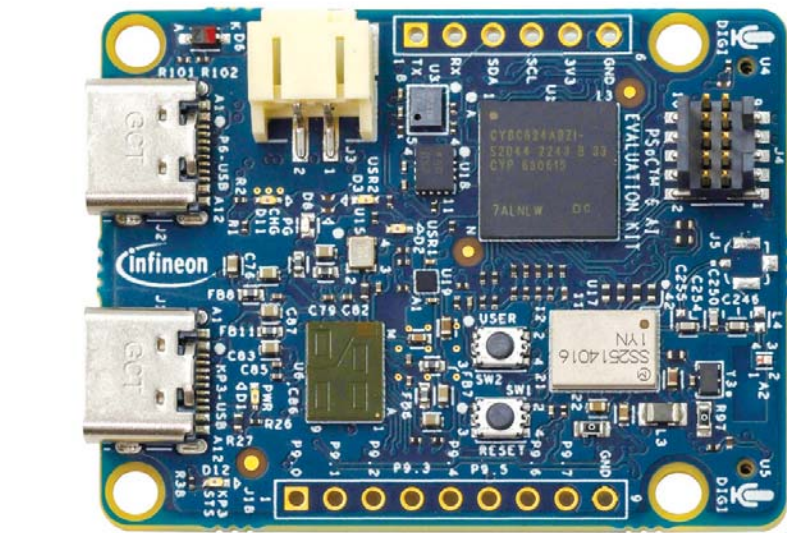
온세미,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등
데이터 전력 효율 높이는 제품 출시

전력반도체가 전기차 수요 부진이라는 어려움과 함께 인공지능(AI) 개발 붐으로 인한 수요 증가라는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맞이하고 있다. 상반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시장 다각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31일 〈매트로경제〉취재에 따르면 전력 반도체 시장의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AI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 관리 및 변환을 제어해 전력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도체 소자다. 시장조사기관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력반도체 시장은 239억 달러(약 32조 2230억원)에서 2030년 370억 달러(약 48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력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맞닥



인피니언 PSoc™ 6 AI 평가 키트 실물 사진.

/인피니언

뜨린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력 반도체 수요처로서 전기차 시장은 최소 30%에서 최대 7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에서 주요 구성 요소로써 배터리에서 모터로의 전력 전달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력 변환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기차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성능 외에도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의 비용까지 모두 전력 반도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차 시장은 올 상반기 초기 시장에서 대중 시장으로 넘어가는 도중 겪는 어려움인 ‘캐즘(Chasm)’을 맞닥뜨렸던 점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예상 판매량은 1641만 2000대로 16.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 성장률(33.5%)보다 16.9%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최대 수요처의 시장 성장 둔화라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AI라는 기회도

등장했다. 전세계 산업계를 강타한 AI 붐은 매년 전세계 전력 소모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OpenAI의 GPT-3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단일 훈련 작업에 소요되는 전기량은 약 1300MWh에 달하는 데, 미국 약 130가구의 연간 소비량에 맞먹는다. 심지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전력 에너지는 2012년 이후 3.4개월 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2030년 전세계 데이터 센터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은 전체 전력 소모량의 7%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인도의 연간 전력 소모량과 맞먹는다. 이 탓에 전력반도체는 AI 시대 새로운 핵심 반도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센터부터 온디바이스 AI로 재편 중인 개인 모바일 기기들까지 강력한 AI 연산이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이 전력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처가 된다는 설명이다.

온세미는 지난 6월 ‘T10 파워트랜치’ 제품군과 ‘엘리트 실리콘카바이드(EliteSiC) 650V MOSFET’을 공개했다. EliteSiC 650V MOSFET은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더 높은 효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시스템 비용을 전반적으로 줄여준다. T

10 파워트랜치 MOSFET 제품군은 DC-DC 전력 변환 단계에 필수적인 고전류를 처리해준다.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표준도 충족한다. 데이터센터에 T10 파워트랜치 MOSFET 제품군과 EliteSiC 650V MOSFET 솔루션을 도입하면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솔루션을 세계 데이터센터에 도입할 시 에너지 소비를 연간 10TWh 줄일 수 있다. 이는 연간 약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는 임베디드, 엣지 AI(Edge AI) 및 머신러닝(ML)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포괄적인 평가 키트를 출시했다.

새로운 PSoc™ 6 AI 평가 키트는 스마트 홈 및 IoT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필요한 모든 툴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센서 데이터 소스 옆에서 추론을 실행해, 클라우드 중심 솔루션 아키텍처에 비해 향상된 실시간 성능과 전력 효율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35mm x 45mm의 소형 폼팩터와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센서 및 커넥티비티를 통합해 현장 데이터 수집, 신속한 프로토타입 개발, 모델 평가, 솔루션 개발에 매우 적합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두산에너지빌리티, 루마니아 원전사업 본격 참여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누적대금 40兆 돌파

CNCAN 원전·SMR 위한 인증 취득
체르노보다 원전 1호기 사업 등 추진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루마니아 대형 원전과 SMR 사업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CNCAN)으로부터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기지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서비스를 위한 인증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원전 1호기의 설비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5월 이 원전의 피더관(Feeder Pipe)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더관은 가압중수로형 원전 주요 설비로, 원자로 온도를 조

절해 주는 냉각재가 흐르는 배관이다.

체르노보다 원전 1호기는 오는 2026년 운전허가일이 만료될 예정으로 30년 추가 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칸두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 컨소시엄은 이 원전의 설비개선사업 3단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가 주도하는 루마니아 S MR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발주처인 루마니아 로파워(RoPower)는 도이세슈티(Doicești)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총 462MW(메가와트) 규모의 S MR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플루오르(Fluor) 등과 기본설계(FEED)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루마니아 클라우드 요하니스 대통령이 두산에너지빌리티의 S MR, 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경남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를 방문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19년부터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에 지분투자를 하며 핵심 기지재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2021년 뉴스케일파워 SMR 제작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기지재 제작 준비를 마쳤다.

두산에너지빌리티 김종원 자력BG장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과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활동을 통해 K-원전 제작 역량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상생 금융 기여 공로 인정받아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네이버페이는 ‘빠른정산’ 서비스로 선지급한 정산대금이 누적 40조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네이버페이가 빠른정산 서비스는 배송 시작 다음날, 결제 후 약 3일만에 대금의 100%를 정산하는 무료 서비스다.

네이버는 국내 스마트스토어 또는 주문형 가맹점 중 네이버페이 3개월 연속 20건 이상 판매, 반품률 2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 비용이나 부가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관계자는 “빠른정산 서비스는 상생 금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페이가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93%는 영세·중소사업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월간 거래액의 약 46%는 빠른정산으로 선지급 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같은 빠른정산 서비스로 소상공인들이 약 1800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네이버가 선지급한 약 40조원 규모의 정산대금과 관련 사업자가 선정산 대출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평균 금리 6% 가정)하면 이자비용이 약 1800억 원에 달해사다.

/이혜민 기자 hyem@

넥센타이어, 2분기 매출 7638억 역대최고

영업익 629억… 69.5% 늘어
판매물량 증가·믹스 개선 영향

넥센타이어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넥센타이어가 올해 2분기 매출 7638억원, 영업이익 629억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 10.5%, 영업이익은 69.5% 증가한 수준이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2분기 역대 분기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다. 판매 물량이 늘어난 데다 믹스(판매 비율) 개선도 주요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윈터타이어 판매 성수기에 앞서 미리 확보

한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판매량이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분기 이후 안정화 되고 있는 유럽 2공장 램프업과 고인치 제품 판매 증가가 영향을 미쳤으며, 원재료·운임 등 비용을 전략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분석했다.

넥센타이어는 하반기에 유럽 2공장의 증설 효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한 유럽 2공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가동률이 상승하고, 고인치 제품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넥센타이어의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증설을 완료한 넥센타이어 유럽 공장은 첨단 자동화 설비가 적용되어 전세계 타이어 공장 중 가장 스마트한 생산 환경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 생산공정에 적용된 물류 자동화 및 실시간 통합 관제와 생산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화재 인자의 원천 차단과 악취 방지설비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장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넥센타이어는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에 OE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교체용 타이어(RE) 수요 확보를 통해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D현대오일뱅크, 부패방지경영 인정 받아

‘ISO37001’ 인증 취득

HD현대오일뱅크의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가 전 계열사의 지속가능 경영 구축을 위해 국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O37001은 준법 문화와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이다. 이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체계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대외적으로 공인 받아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윤리 경영을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 유지 노력



(왼쪽부터)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 이일형 로이드 인증원 대표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으로 부패 방지 체계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이에 ISO37001 인증까지 취득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점검, 보완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철강업계, 국내외 잇단 악재에 ‘흔들’… 원가절감 등 대책 마련

철강사, 전년비 2분기 실적 부진
실물경기 악화에 수요 위축 야기
中 저가물량 공세에 韓 가격 하락

1분기 비례선 매출·영업익 올라
하반기, 점진적 반등 기대 목소리
수익성 방어·글로벌 마케팅 박차

국내 철강업계가 나란히 2분기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철강사들은 이를 타개하고자 원가 절감, 생산량 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의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5100억원, 영업이익 75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 영업이익은 43.3% 감소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2.5%, 영업이익은 29% 늘었다. 현대제철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6조414억원, 영업이익 98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경기침체로 인해 실적이 부진한 철강공장의 이미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 78.9%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5.6%, 영업이익은 1.6% 증가했다.

실적악화의 요인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꼽힌다. 고금리·고물가 등 실물경기 악화가 수요 위축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과잉 생산된 저가 물량이 국내

에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더욱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부동산 침체까지 겹쳐 전년 대비 실적이 악화됐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미국 대선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철강사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 강화 정책이 국내 철강업계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전분기 대비 반등한 실적을 기록한 것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중국 정부의 탄소저감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철강 생산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철강 수급이 개선되고 수출 가격이 상승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2분기 콘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글로벌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하반기 저점 확인 후 점진적으로 회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방 산업인 자동차, 특히 선박의 경우 국내 조선사가 현재 4년 이상 일감을 보유하고 있어 견조하다”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좋아질 것”이라 밝혔다.

철강사는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포스코는 경제적 녹색전환(GX) 추진을 위해 국가 R&D 실증사업과 연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매진 중이다.

현대제철은 탄소저감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신강종 개발 등 자동차 소재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마케팅을 확대해 글로벌 차강판 판매비중을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U+ “데이터 강점 살려 AI 사업화 추진” 2분기 매출 8641억… 전년 동기비 15% ↓

황현식 사장, AI 석학 만나 협력 논의
익시젠, B2C 등 디지털전환 전략 설명

LG유플러스는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인공지능 세계 4대 석학 중 한 명인 앤드류 응(Andrew Ng) 스탠퍼드대 교수와 만나 글로벌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을 방문한 앤드류 응 교수는 황현식 사장과 만나 글로벌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협력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미팅에는 황 사장 외에도 이상엽 CTO(전무), 전병기 AX기술그룹장(전무), 등 기술 및 전략 관련 임원도 함께 참석했다.

앤드류 응 교수는 구글리서치의 사내 딥러닝 팀인 ‘구글 브레인’을 설립하고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에서 수석과학자 겸 부사장으로 근무한 AI 전문가다. 특히 딥러닝 계에서 거둔 성



지난 29일 오후 LG유플러스에서 만난 황현식 사장(왼쪽)과 앤드류 응 교수의 모습. /LGU+

과를 기반으로 세계 4대 AI 석학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응 교수에게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인 ‘익시젠’을 활용해 일반 고객 대상 서비스(B2C)와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B2B), 네트워크 등 전 사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발굴에 집중

해 익시젠 기반의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연내 8개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어 응 교수는 글로벌 AI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생성형 AI가 발전함에 따라 지식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 전반의 자동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AI를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응 교수는 “이번 미팅이 LG유플러스가 보유한 AI 전문성이나 시장 내 사업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AI를 활용한 사업화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지식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에코프로, 영업손실 546억 집계

에코프로의 2분기 매출액이 전방시장 둔화로 인해 감소했다.

에코프로는 2024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15% 감소한 86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2분기 영업손실은 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핵심 가족사인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에 이어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매출 8095억원, 영업이익 39억원을 실현했다. 매출액의 경우 전기 대비 1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재고평가충당금환입 등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2분기 매출은 667억원, 영업손실은 3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기 대비 16% 감소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전기 대비 줄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털 솔루션 기

업 에코프로에이치엔의 2분기 매출은 468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9%, 영업이익은 51% 감소했다.

전방 수요 둔화로 제품 판매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양극재 판매가격(평가) 하락폭이 축소되며 3분기에는 판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양극재 판가 하락률은 전기 대비 13% 수준이었지만 3분기에는 2%대에서 하락률이 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코프로는 캐즘 이후의 이차전지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양산 예정인 전구체 공장(CPM3, 4공장) 등 국내 설비 증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외부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등을 통해 배터리 소재 생태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키오스크’ 점령한 식당가… 외식산업 고용 감소 유발

고용정보원, 디지털 전환 일자리 변화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음식점업에서는 판매·서빙 직종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음식점 605곳에선 도입 후 판

매·서빙 근로자가 약 0.21명 감소했다. 음식점 판매·서빙 근로자 수가 평균 1.82명이기 때문에 약 11.5%가 감소한 셈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2.06시간 증가했다. 고용을 줄이는 대신 남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용직 고용은 약 0.09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은 0.15명 줄었다. 서빙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는 약 5.2% 감소해, 한 달에

약 6만8600원의 인건비를 덜 받았다.

한국고용원은 판매·서빙 직종의 일부 근로자를 줄이고 이들을 키오스크로 대체했지만, 남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일부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블릿 주문기를 도입한 110곳의 경우 조리사의 고용은 늘었으나 판매·서빙 근로자의 고용은 0.14명(약 7.6%) 줄었다.

/김대환 기자 kdh@

SK C&C, 글로벌 공급망 ESG 실버 인증

‘클릭 ESG’ 활용… 상위 15% 이내 들어

SK C&C가 대원씨엔씨가 SK C&C의 ‘클릭 ESG’를 활용해 ‘에코바디스 글로벌 공급망 ESG 실버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기관으로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에코바디스 등급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로 나뉘며, 실버 등급은 상위 15% 이내 기업에게 주어진다.

대원씨엔씨는 클릭 ESG를 통해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 플랫폼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산업별 ESG 핵심 지표 평가와 동종 업계 비교, 세부 개선 영역 제시 등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이뤄냈다. /김서현 기자 seoh@

정광천 “K-항공 기술·노하우로 아세안 중심 해외시장 공략”

〈아이비리더스 대표〉

아이비리더스, 미래 먹거리 모색

과천으로 본사 이전 ‘제2의 도전’
20여 년간 항공교통 등 노하우 축적
‘항공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도약

20년 넘게 항공분야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온 아이비리더스가 도심항공교통(UAM)과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미래 먹거리 모색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K-항공’ 수출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정광천 아이비리더스(IB Leaders) 대표는 31일 경기 과천에 있는 본사에서 “항공 분야는 편의성과 가성비만 따질 일은 아니다. 안전과 함께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업력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비리더스는 최근 과천 문원동에 있는 과천펜타원에 터를 잡고 서울 구로에 있던 본사를 이전, ‘제2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광천 대표는 올해초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회장까지



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표.

말으며 회원사 애로해결, 시너지 모색, 글로벌화 등을 위해 전방위로 뛰어다니고 있다. ‘이노베이션 비즈니스(Innovation business)’의 약자인 아이비리더스는 정 대표가 2003년 5월 창업한 회사다.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공항운영관리시스템, 항공안전시스템, 항공정보시스템 등 항공기 운항과 공항 관제 등에 관한 다양한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7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 가운데 85% 가량이 개발자일 정도로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이노비즈협회와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광천 회장(왼쪽 3번째)이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정 대표는 “우리가 개발해 선보인 대표적인 솔루션 ‘스카이로드(SKY-ROAD)’는 3차원 공역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항공기가 출발해 항로에 진입할 수 있는 가상의 길을 그리는 데 쓰인다. 손으로 그렸던 과거엔 보름에서 1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하루만에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40년께면 전세계 시장 기준으로 1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UAM·UTM(무인비행장치교통시

스템)은 정 대표와 아이비리더스가 미래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분야다. 20년 넘는 업력과 기술력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틈새를 비집고 ‘항공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다.

아울러 김포, 제주, 김해 등 국내 공항에서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공항과 해외의 항공 관련 기관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이지만 국내에선 이미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올라선

만큼 다음 차례는 해외다. ‘K-항공’ 분야에서 수출에 일조하는 강한 기업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6년이 지나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정부 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다. 개발자 인건비 등은 올랐는데 5년 전 수준의 비용으로 기업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며 애로를 토로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30일엔 이노비즈협회장 자격으로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의 방산분야 진출 및 성장 추가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 대표는 “최근 기업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노비즈(기술혁신) 인증 기업이라면 더 도전적으로 R&D를 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선진국을 뚫는 것은 다소 힘이 들겠지만 중진국, 후진국은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이 더욱 많이 도전하고 실전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네카오, 올림픽 ‘특별 페이지’ 커뮤니티 오픈

〈네이버+카카오〉

이달 11일까지 전용페이지 운영
네이버, 종목별 대표 응원방 38개
카카오, 18개 응원 ‘테이블’ 개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림픽 기간 중 특별 커뮤니티 기능을 선보이며 올림픽 대표 포털 사이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94.0%로 약 4,774만 명에 달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대표 앱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 포털 앱 이용자 수는 4291만 명,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4645만 명에 달해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5%가 두 기업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중이다.

3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올림픽 기간 중 전용 페이지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네이버는 개막과 동시에 특집 페이지를 열어 메달 및 선수단 정보, 경기 일정 등 파리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한편, ‘오픈톡’ 서비스에도 올림픽 기간 중 대표

응원방, 양궁, 수영 등 종목별 응원방 총 38개를 특별 운영한다. ‘PARIS NOW 대한민국 응원방’에서는 양궁 장혜진 해설 위원, 태권도 김유진 선수 등 국가 대표 선수, 코치, 해설 위원, 스포츠기자 등이 직접 파리 현장에서 생생한 콘텐츠를 전하고, 이용자와 소통한다.

네이버 스포츠 주관별 리더는 “경기 결과, 일정, VOD 영상 등 올림픽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것을 넘어서, 파리 리포터가 함께 참여하는 오픈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 팬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음 카페 오픈형 커뮤니티 ‘테이블’에 18개의 올림픽 종목별 응원 테이블도 개설했다. 이용자들은 글·영상·이미지 등을 공유하며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다. 운영기간 중 게시글과 댓글 활동으로 일정 점수를 달성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치킨 교환권도 선물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고! 파리(Go! PARiS)’ 탭을 열었다. 다양한 주제로 가볍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4개의 오픈채팅 라이트 대화방을 개설한다. 실

시간 응원과 승부 예측 등 올림픽 관련 소식을 공유하는 ‘파리에서 온 소식’, 릴레이 소설과 랜선 프랑스 여행 등 활동이 이뤄지는 ‘파리에 가면’,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나 명장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경기장 밖 수다방’ 등의 대화방이 있다.

두 기업이 이번 특집 페이지에 이용자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기능을 도입한 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속성 때문이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몰입감과 충실도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에게 형성된 몰입감은 해당 커뮤니티의 기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여타 콘텐츠 이용을 활발하게 하고 이를 타인에게 추천하는 등 다양한 2차, 3차 행동을 가져온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올림픽에서 내놓은 바와 같은 명확한 주제가 존재할 때 이용자들은 자유주제 커뮤니티일 때보다 30% 이상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seoh@

중소기업계, ‘협동조합 단체협상권 부여’ 건의

의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가져

중소기업계가 의원식 국회의장에게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시 공동행위 적용을 확대하고 단체협상권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의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에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자장 그리고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였다”면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



의원식 국회의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컨테이너 수급 원활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의원식 국회의장은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外人, 한국서 창업 도전하세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개소
외국인 국내 창업·정착 지원

한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창업비자를 개편한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말부터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창업비자를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틱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개소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다.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준다.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에서 발표한 창업비자 개선방안을 구체화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iM뱅크와 ESG 경영 확산 ‘맞손’

금융 인센티브·기업진단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iM뱅크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중진공은 iM뱅크와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3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ESG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ESG 심층진

단 및 금융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해 연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사항은 ▲중소기업 ESG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 실시 ▲ESG 진단 참여기업 대상 금리우대 ▲중소기업 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계좌 개설 및 사전검증 플랫폼 제공 ▲ESG경영 실천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이다. /김승호 기자

호실적·밸류업·주주환원 등… 4대 금융지주 ‘승승장구’ 전망

4대 금융지주 상반기 당기 순이익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9.3兆

DGB금융지주·기업은행, 부진 흐름
주주환원 확대 부족… 목표가 하향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호실적, 밸류업 정책 등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반면 실적 부진, 주주환원 확대 여력 부족 등이 예상된 DGB금융, 기업은행의 주가에 대해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신한지주는 25%가량 오르며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어 KB금융(10.43%), 우리금융지주(9.31%), 하나금융지주(7.48%) 등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DGB금융, 기업은행 등은 2.13%, 1.08% 오르는 데 그쳤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실적, 주주환원 정책 등에 따라 각 은행의 향후 전망이 엇갈리는 모습의 이미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조3526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 1824억 원)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KB금융이 2조 78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이익을 냈으며, 신한지주(2조7470억원), 하나금융(2조687억원), 우리금융지주(1조7554억원) 순이다.

이 같은 호실적에다가 KB·신한·하나금융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공개 등으로 인해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DGB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다. DGB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3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상

반기 기준으로 봐도 당기순이익이 1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급감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2분기 연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6% 감소한 6097억원으로, 분기 최고 실적이었던 1분기 대비 22.3% 줄었다.

이들 은행주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세법 개정, 밸류업 정책 등 정부의 노력과 주주환원 정책 등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연말께 밸류업 공시와 더불어 자본정책 제시할 것으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세법개정, 특히 ISA 한도 상향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이 현실화 된다면 금융지주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가 결코 불가능한 허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증권업계에서는 DGB금융, 기업은행 등이 주주환원 확대 여력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등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키움증권은 DGB금융의 목표가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기업은행의 목표주가를 기존 1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DGB금융은 은행주 중 최저 PBR이지만 상대적 투자매력 낮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충당금비용이 하반기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분기 말 보통주 자본비율은 11.21%로 주주환원 강화 여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올해 2분기 은행 분야는 선방했으나 비은행은 다소 미흡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기말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나 시간이 남았고, 자기주식 매입소각이 없어 타 은행주 대비 주주환원정책이 부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리인하 시점보다 장기간 흐름에 주목”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전망 간담회
AB자산운용 “채권 투자 증가 중
국채 투자선 듀레이션 고려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통화정책 완화 흐름을 끌고 가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 사이클 전환 시도가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31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AB자산운용)은 ‘2024년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 전망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유재홍 AB자산운용 파트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첫 금리인하를 9월에 시작한 뒤 올내는 두 번, 내년에는 분기당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다고 본다”며 “최초 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 기간 자체를 장

기간 끌고 나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파트장은 1997년부터 채권매니저를 맡아 온 채권 투자 전문가이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채권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유 파트장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준 등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과거 사례나 시장의 예상처럼 금리인하 흐름을 상당 기간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야

를 넓게 사용해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로의 전환을 염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리더 글로벌 채권최고투자책임자는 현 시기를 ‘채권의 황금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상장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거의 1500억달러(약 208조원)가 유입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 파트장은 투자 전략으로도 채권이 유리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금리 인하 사이클 초기 단계에서 현금 대신 채권을 들고가는 것을 권고한다”며 “다만 국채 투자의 경우 듀레이션(잔존만기)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크레딧 채권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훨씬 근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운용 ‘美30년국채 ETF’ 단기간 성과

KODEX 美30년국채+12%프리미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H)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3개월 만에 순자산 2000억원을 넘었다고 31일 밝혔다. 30일 종가 기준으로 순자산 2314억원을 기록했으며,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도 1146억원에 달했다.

이 ETF는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미국 30년 국채들에 투자하고 동시에 연 12% 수준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주 위클리 콜옵션(매수 청구권)을 일정 수준만 매도한다. 또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쿠폰)를 자산에 재투자한다. 상장 이후 매달 1% 수준의 분배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도 높은 시세 참여율로 5.34%의 3개월 수익률



/삼성자산운용

을 기록하고 있다.

서보경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H)의 높은 월배당률과 시세 참여율 등을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경험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키움증권, 2분기 영업이익 3123억… 72% 늘어

(전년비)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세 등 영향

키움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1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2.6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식했다. 매출은 2조280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6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321억원으로 74.01%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 시장이 활발했던 2021년 상반기(6398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익 증가에 우량 딜 위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익 호조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키움증권의 2분기 국내주식 수수료

수익은 88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으나, 해외주식 수수료수익은 57.9% 증가한 39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에 뛰어들면서 관련 수익이 증가하고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중은 감소했다. 2분기 구조화·PF 수익은 474억원으로 전 분기(351억원), 작년 동기(18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셀다운(재매각)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중은 1분기 49.0%에서 2분기 41.8%로 낮아졌다.

키움증권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최근의 분위기는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 환경에 우호적인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유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관희 기자

신한투자증권

‘특판 DLB’ 2차 모집

신한투자증권은 사옥 이사(ISA)기념 세전 연 5.5% 특판 파생결합사채(DLB) 2차 모집을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10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판 DLB는 국고채 3개월 금리(KTB3M)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최대 세전 연 5.51%에서 최소 세전 연 5.5%를 지급하는 3개월 만기 원금지급형(Digital) 상품이다. 만기 평가가격이 10% 이상인 경우 세전 연 5.51%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평가가격이 10% 미만인 경우 세전 연 5.5% 수익을 지급한다. 단,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하이투자증권, 비대면 신규·휴면고객 행사

온라인 거래 수수료 등 혜택

하이투자증권은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스마트지점 신규 및 휴면고객 대상으로 계좌개설 및 주식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이벤트 기간 내 하이투자증권 스마트지점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1%로 적용한다.

선물 옵션 거래의 경우 3개월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한 번만 거래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혜택을 제공한다.

수수료 혜택은 시스템 트레이딩 제휴

서비스인 예스트레이더를 통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주식은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69%로 적용한다.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간 환전 수수료를 90% 우대해 적용하며,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혜택 종료일 직전 3개월 내 미국 주식을 단 1주라도 거래했을 경우 추가로 환전 수수료 우대와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 무료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한다.

이벤트는 하이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iM하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맛·건강 모두 챙겨요”… 커피시장에 부는 ‘디카페인’ 바람

음료 트렌드

〈中〉한국인의 커피 사랑

커피는 전 세계에서 매일 20억 잔 이상 소비되는 기초식품이다. 특히 한국은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으로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152잔 대비 두 배 이상이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는 커피로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아메리카노가 49%, 라떼가 33%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웰니스 열풍이 불면서 국내 커피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관세청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18년 1724t에서 지난해 6521t으로 2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커피 시장에서 디카페인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서 3.39%로 늘었다. 올 상반기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3371t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되, 맛과 향은 그대로 즐기



디카페인 콜드브루 커피 2종 /투썸플레이스

전 세계 年 소비량보다 2배 많아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 전년비 19%↑

스타벅스, 누적판매량 1억잔 달성
던킨, 디카페인 커피 라인업 확장
투썸플레이스, 월평균 판매량 50%↑

고 싶은 이들이 늘면서 디카페인 커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디카페인 커피를 늘리고 있다.

2017년 8월 디카페인 커피를 도입한 스타벅스는 이듬해 누적 판매량 1000만 잔을 돌파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2000만잔 판매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 4월 누적 판매량 1억잔을 달성했다. 지난해 스타벅스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 중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의 비중은 8.9%에 달한다. 고객 11명 중 1명이 디카페인 커피를 찾은 셈이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은 디카페인 커피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 운영하던 ‘디카페인 블렌드’를 지난 3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디카페인 듀얼브루’ 2종과 ‘디카페인 캡슐 커피’를 선보이는 등 디카페인 커피 라인업을 확장했다.

투썸플레이스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며, 올해 5월 기준 월평균 디카페인 커피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대폭 증가했다.이에 디카페인 콜드브루 커피 2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커피 소비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 하루에 많게는 4잔도 마시는데,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디카페인을 마시기도 한다”며 “과거 디카페인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맛과 향을 개선한 고

품질의 디카페인 커피가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맛과 경험에 대한 니즈가 큰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브랜드 커피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동시에 가성비비를 추구하는 커피족도 늘었다.

이미 국내에는 외국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진출해있다. 2018년 국내에 진출한 블루보틀은 총 15개 점포가 있으며, 지난해 2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 진출한 캐나다 커피 프랜차이즈 팀홀튼도 11개 매장을 운영중이다. 국내 진출 1년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다.

팀홀튼은 국내 진출당시 2028년까지 국내에 15개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커피계의 에르메스’라는 별명이 붙은 싱가포르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바사커피는 서울 청담동에 플래그십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다. 북유럽 3대 커피로 불리는 ‘푸글렌’도 올해 가을 서울 상수역 인근에 첫 번째 매장을 연다.

해외 브랜드 공세에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몸집을 키우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지난해 매출 3684

억원, 영업이익 694억원으로 전년(매출 1748억원, 영업이익 310억원)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컴포즈커피는 매출 889억원, 영업이익 367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1%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카페가 나뉘는 것 같다”며 “특별한 날이나 분위기를 즐기고 싶을 때에는 프리미엄 카페를 가지지만, 일상적으로 커피를 구매할 때는 가성비 카페로 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카페업계가 포화상태라고 하지만,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일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여의도 TP타워에 오픈한 팀 홀튼 매장 전경.

/팀 홀튼

롯데마트, 바캉스 겨냥 ‘고창 한우’ 반값 판매

‘팔도 우수 한우’ 네 번째 프로젝트
오늘부터 4일까지 최대 50% 할인
엘포인트 회원, 등심 100g 8490원

롯데마트가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네 번째 팔도 우수 한우 상품을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올해부터 전국의 품질 좋은 한우를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팔도 우수 한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올 3월 첫 번째 ‘안동 한우’를 시작으로 지리산, 참예우 지역의 한우를 잇달아 출시해 롯데마트 한우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판매한 ‘참예우 한우’ 행사 기간 동안 한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신장했다.

31일 롯데마트는 오늘부터 4일까지 4일간, 전 점에서 팔도 우수 한우 4탄 ‘고창 한우’ 전 품목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여름철



롯데마트는 오늘부터 4일까지 전 지점에서 팔도 우수 한우 4탄 ‘고창 한우’ 전 품목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나들이를 겨냥해 ‘1+등급 고창 한우 등심(100g)’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50% 할인한 8490원에, ‘고창 한우 국거리/불고기(100g)’ 또한 반값인 각 399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이번 고창 한우를 선보이

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북 지역의 축사를 돌아다니며 사전 기획을 진행, 약 30톤의 고창 한우 물량을 확보했다.

고창 한우는 자체 생산한 사료를 급여 받아 육색이 붉고 마블링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축사 바닥에 왕겨 등을 깔아 차별화된 위생 관리를 받았다. 실제로 고창 한우는 지난 2017년 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정상회담 만찬 품목으로 선정돼 우수한 품질과 맛을 증명했다.

강석진 롯데마트 슈퍼 축산팀 MD(상품기획자)는 “8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구이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뛰어난 품질의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반값 행사를 준비한 만큼 무더운 여름철 고창 한우로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레고코리아, ‘레고 드림즈’ 시즌 2 출시

레고코리아가 31일 서울 중구 라온에서 ‘레고 드림즈’ 시즌2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 출시되는 이번 신제품은 모든 제품이 최대 세 가지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다.

/레고코리아

농심 ‘신라면’ 팝업스토어, 佛 현지서 호응

프랑스 중심 유럽시장 공략 강화

농심이 프랑스 파리 현지 까르푸 매장에서 신라면을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를 운영중인 가운데,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심은 지난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에펠탑, 스포츠 경기장 주요 거점에 위치한 5개 까르푸 매장에서 농심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즉석조리 ‘한강라면’ 시식행사, 신라면과 짜파게티 등 주요 제품 할인판매, 할인 쿠폰 증정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중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세계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에게 신라면을 알리고, 유럽 시장 공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시식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약간 맵지만 아주 맛있다”, “전체적으로

면의 품질이 좋고 냄새나 맛 모두 조롭다. 진짜 맛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농심은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프랑스 Top 2 유통업체인 르끌레르와 까르푸에 주요 라면과 스낵 제품을 입점하고, 파리에서 열린 ‘코리아 엑스포 2024’ 박람회와 K-스트리트 페스티벌(Street Festival)에 연이어 참가해 제품 시식공간 및 포토존으로 구성된 농심 테마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 중에는 독일 Lidl(리들), 덴마크 Salling group(셀링 그룹) 등 현지 대형 유통업체에 신라면 등 주요제품 입점을 확대, 까르푸가 진출해 있는 동·남유럽 6개국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음료 사이즈별 가격 조정

스타벅스 코리아가 아메리카노 등 음료 가격을 오는 2일부터 사이즈별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숏 사이즈는 300원 인하하고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일괄적으로 각각 300원, 600원씩 인상한다. 트렌타 사이즈도 4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그란데 사이즈는 5000원에서 5300원으로, 벤티 사이즈는 5500원에서 6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가장 많이 마시는 톨 사이즈는 4500원으로 동결된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뮤직 페스티벌로 소통 이어가

가평군 자라섬 ‘이슬라이브 페스티벌’
올해 100주년 기념 다채로운 행사 준비

하이트진로는 9월 7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2024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에 처음 개최된 세계 유일의 소주 뮤직 페스티벌로 참이슬을 사랑해준 소비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기획됐다.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은 최정삼급 아티스트의 공연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로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당

일 누적관람객이 1만8000명에 달했다.

올해가 100주년인 만큼 더욱 다채로운 행사와 테마파크형 콘텐츠를 준비했다. 에일리, 멜로망스, 이무진, 다비치, 데이브레이크, 마이티 마우스, 키썸, 블리처스, 김나영, DJ 오은별, 싸이버거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가 참여, 참이슬 광고모델 아이유는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페스티벌을 빛낼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포토존 ▲브랜드존 ▲체험존 ▲굿즈샵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에이피알, 상반기 실적 ‘역대최대’… 5대 1 액면분할 결정

매출 3044억, 영업이익 558억 기록
뷰티 디바이스·화장품 매출 늘어
1주 당 액면가 500원→100원 추진

에이피알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3044억원, 영업이익 558억원으로 역대 최대 반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8%, 영업이익은 16.3%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55억원과 280억원으로 에이피알은 분기 최대 매출을 올렸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에이피알의 화장품 브랜드인 ‘메디큐브’와 뷰티 디바이스의 성장이 주효했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장품의 상반기 매출액은 1349억원, 뷰티 디바이스의 상반기 매출액은 1370억원이다.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7%, 34.8%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또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의 매출이 에이피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로 ‘에이지알’을 선보이고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를 운영하고 있다. /에이피알

비중은 각각 45%, 44.3%다.

이에 대해 에이피알은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의 시너지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상호 성장이 촉진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놴다.

해외 사업의 매출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에이피알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전년 동기 대비 73.4% 늘어난 143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에이피알은 미국에서 대표 K

뷰티 브랜드로 성장하며 실적 성과를 거뒀다. 에이피알이 미국에서 기록한 상반기 누적 매출은 497억원에 이를 뿐 아니라, 에이피알은 미국 대표 이커머스 아마존에서 인기 제품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디큐브 ‘제로모공패드’가 지난 4월과 6월에 아마존 내 토너&화장수 부문에서 베스트셀링 제품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이어갔다.

이처럼 꾸준한 성장을 증명한 에이

피알은 5대 1 비율로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7월 31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해당 사안은 오는 9월 20일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보통주 1주 당 액면가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을 추진하며 액면 분할 시 총 발행 주식 수는 762만178주에서 3810만890주로 늘어난다. 분할을 위해 오는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10월 3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이와 관련 에이피알은 유통 주식 수 증대를 통해 여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연내 유가 증권 시장에서 유통 물량을 늘리고 소액 주주들의 신규 유입, 투자금 확보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에이피알은 오는 하반기 뷰티 디바이스 신규 모델 출시, 시즌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대비, 에이피알팩토리 평택 제3팩팩스 준공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업 미래 가치와 수익 창출, 주주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자음생 라인’ 재단장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설화수가 ‘자음생 라인’을 재단장해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설화수 자음생 라인은 1966년 ‘ABC 인삼크림’에서 시작한 60년 인삼 과학의 정수가 담긴 설화수 대표 제품군이다. 설화수는 특정 인삼 사포닌이 피부를 활성화한다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피부 노화 징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인삼 성분을 지속 연구해 왔다.

특히 이번 재단장으로 설화수는 독자 성분인 진세노믹스, 진생캡타이드 등을 함유한 새로운 자음생크림을 선보인다.

새로운 자음생크림은 질감의 차이에 따라 ‘자음생크림’과 ‘자음생크림 리치’로 나뉜다.

설화수에 따르면, 자음생크림은 빠른 흡수력과 피부 보습 막을 채우는 고점성으로 촉촉하고 피부에 산뜻하게 밀착된다. 자음생크림 리치는 목직향 영양감의 고밀도 질감으로 피부 방어력을 높여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설화수 자음생 라인의 자음생크림, 자음생 크림 리치, 자음생 캡슐세럼, 자음생 아이크림, 자음생수, 자음생유액 등은 8월 1일 롯데백화점에서 사전 출시된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스테키마’, 21조 규모 북미시장 공략 박차

스텔라라 시밀러 캐나다 허가 승인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순항

셀트리온이 북미 시장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의 허가를 획득, 21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에 대한 신약허가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캐나다에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의 적응증으로 스텔라라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셀트리온은 캐나다를 시작으로 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북미 공략에 착수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할 계획이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규모는 약 204억 달러(약 26조52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캐나다 시장 규모는 약 6억6300만 달러(8619억원) 수준이지만, 미국까지 포함한 전체 북미 시장 규모는 약 16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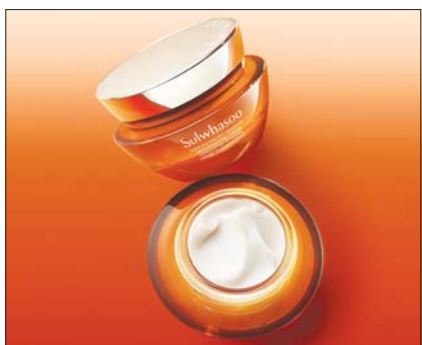
7500만 달러(21조 2875억원)로 글로벌 시장의 80%가 넘는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가 획득으로 북미 시장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앞서 출시한 램시마, 램시마SC(미국 판매명: 짐펜트라), 유플라이마 등 기존 중앙괴사인자(TNF- α) 억제제 제품군에 인터루킨 억제제 제품까지 더해 치료제 영역을 확장했다.

셀트리온은 캐나다가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적극 장려하는 대표적 친(親)

바이오시밀러 정책 도입국인 만큼,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셀트리온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6월 국내에서 스텔라라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고 이어 유럽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최종 유럽 품목 허가도 획득하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선점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 ‘자음생크림’. /아모레퍼시픽

동국제약 ‘이지스마트’

필름형 숙취해소제 출시

동국제약이 구강용해 필름 제형의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를 출시했다.

이지스마트는 식약처 숙취해소인체 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국내 최초의 원료인 ‘아이스플랜트 복합농축액’을 함유한 숙취해소제이다.

아이스플랜트 복합농축액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체적용시험 결과 뛰어난 숙취효과를 입증했다. 숙취설문지표 총 9개 문항(▲숙취로 인한 불편감 ▲갈증 ▲피로 ▲두통 ▲현기증 ▲식욕부진 ▲위장장애 ▲구역질 ▲심장떨림) 모두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은 구강 용해 필름 제형으로 출시되어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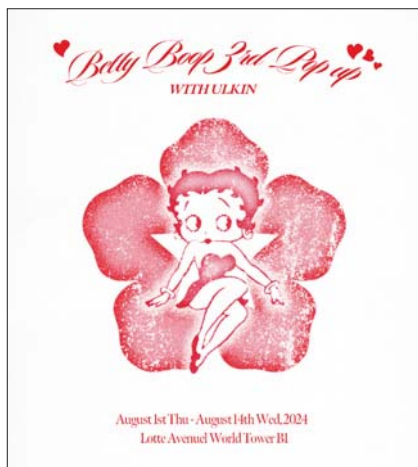
롯데백화점, ‘얼킨·벤티북’ 컬래버 팝업스토어

잠실 에비뉴엘서 이달 14일까지

롯데백화점이 K-패션 브랜드 ‘얼킨’과 캐릭터 ‘벤티북’ 컬래버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에서는 K-패션 브랜드 ‘얼킨’과 만화 캐릭터 ‘벤티북’ 컬래버 팝업스토어를 잠실 에비뉴엘 지하1층에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31일 밝혔다.

‘얼킨’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며 파리패션위크 등 세계 무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K-브랜드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다양한 컬래버를 지속 선보이고 있어 1020세대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벤티북’은 1930년대에 등장한 만화 캐릭터로, 감성적인 외모와 함께 당당한 여성을 표방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대에 사랑



얼킨X벤티북 롯데월드몰 팝업스토어 키비주얼. /롯데쇼핑

받고 있는 캐릭터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벤티북’ 캐릭터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팝업 공간 전체를 강렬하게 조성하고 다양한 컬래버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가

장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선발매 상품을 공개한다.

잠실 에비뉴엘 팝업스토어를 기념하여 ‘SEOUL(서울)’과 ‘JAMSIL STADIUM(잠실 스타디움)’ 영문을 새긴 벤티북 캐릭터 티셔츠(3만6000원)와 캡모자(3만9000원)를 한정 수량으로 2주간 단독 판매한다. 선발매 상품 외에도 키링과 폰케이스 등 액세서리를 비롯한 ‘벤티북’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굿즈를 선보인다.

박동준 롯데백화점 맨즈패션1팀 바이어(buyer)는 “얼킨은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K-브랜드”라며 “떠오르는 K-패션 브랜드와 오랫동안 사랑받는 ‘벤티북’ 캐릭터 컬래버 팝업처럼 향후에도 전 연령대를 사로잡을 이색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조아제약

썸머특가, 최대 37% 할인

조아제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할인 충전과 피부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행사를 선보인다.

조아제약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조아제약 공식몰에서 ‘썸머 특가’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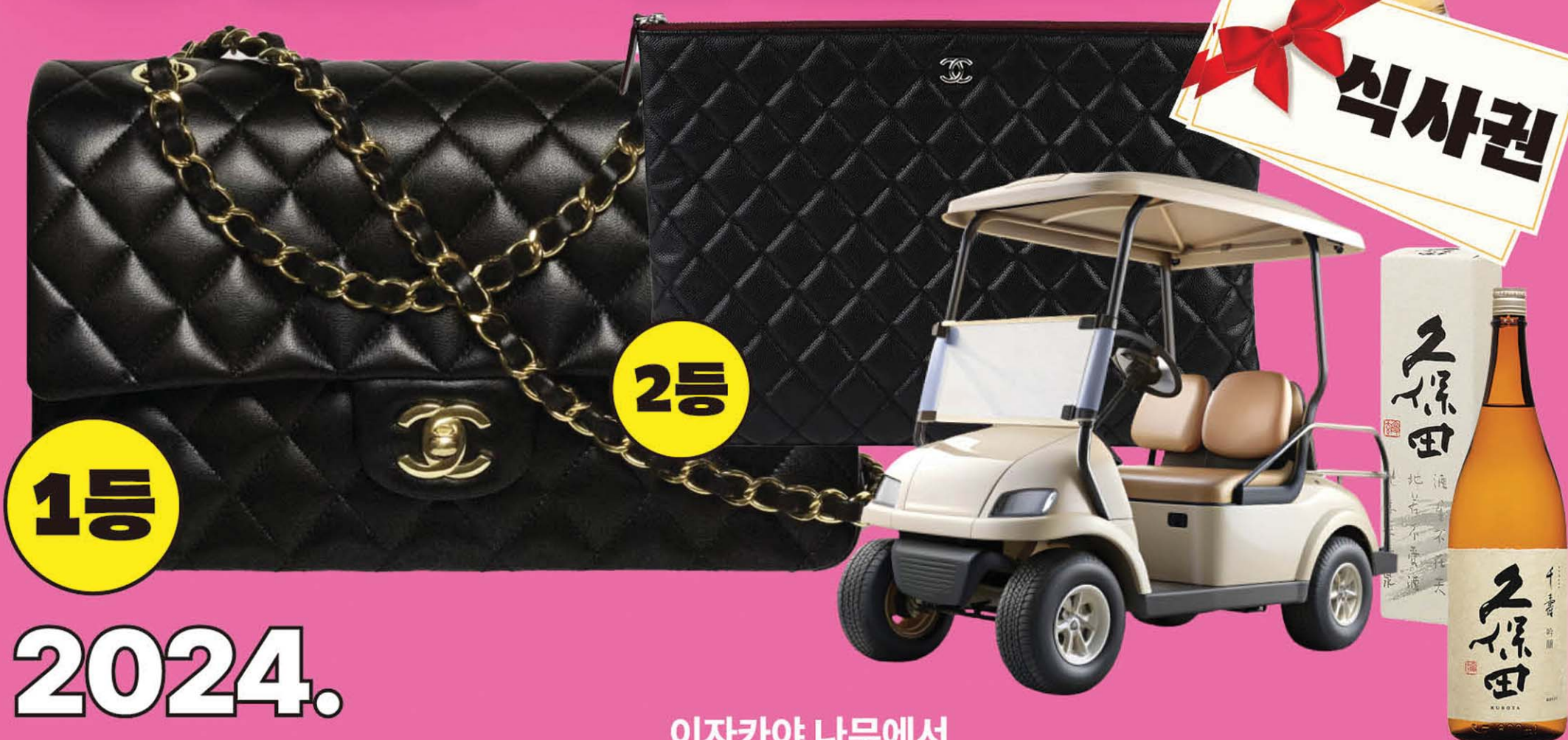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는 조아 아르기닌 맥스, 봄치너 뷰티마인 센텔라 등 조아제약 이커머스 주요 제품을 최대 3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아제약에 따르면, 마시는 고품질 아르기닌 ‘조아 아르기닌 맥스’는 1앰플에 L-아르지닌 6200mg을 함유한 제품이고, ‘봄치너 뷰티마인 센텔라’는 이너뷰티 음료다. 두 제품 모두 특허받은 용기 ‘조아 세피지 앰플’을 적용해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조아 세피지 앰플은 인체 공학적 설계로 국내 특허를 취득하고, 해외 34개국에서 특허 출원을 마쳤다.

/이청하 기자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1억원 1천명 경품이벤트



1등

2등

2024.
7.15.~8.31.

이자카야 나무에서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4인 골프 라운딩 (그린피+카트비) 6명 등
1천 명에게 1억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024. 7. 15. ~8. 31. (1.5개월)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저녁 방문 모든 고객 (점심 고객 제외)
테이블 수에 맞춰서 스크래치 복권 1매 제공 및 응모
금액 결제 시, 복권 제공

참여 방법

팜 없는 스크래치 복권 (기간 내 중복응모 가능)

이벤트 발표 및 경품 지급

15개 지점 현장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골프 라운딩(4인 그린피+카트비) 등

Tel: 02-511-6787 / E-mail: namu19817@naver.com

www.namulove.co.kr

경품 내용

- 1등 샤넬 클래식 핸드백(11.12 클래식 핸드백) x 1명
(1,800만 원 상당)
- 2등 샤넬 클러치백(클래식 클러치 미디움 은장) x 3명
(750만 원 상당)
- 3등 4인 골프 라운드권 x 6명
(900만 원 상당)
- 4등 10만 원 식사권 x 192명 (약 1,90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5등 쿠보타센쥬 사케(96,000원) x 240명
(약 2,300만 원 상당)
- 6등 5만 원 식사권 x 576명 (약 2,88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7등 참여자 전원 생맥주 두 잔씩(복권 한 장 당 생맥주 2잔)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캠코, 교육격차 해소 나선다… 부산교육청 1.7억 기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개보수와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 기부금 1억7000만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권남주 캠코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가운데), 김희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효성첨단소재, '밀원생태학습정원' 조성

효성첨단소재는 울산시 울주군, 국립생태원과 함께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에 멸종위기 밀원생태학습정원을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사업으로 멸종위기종 식물을 활용한 정원 조성을 통해 꿀벌의 먹이를 늘림으로써 생태계 균형 유지 및 멸종위기종 보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효성첨단소재



홈쇼핑-농협중앙회, 도농상생 환경조성 MOU

홈쇼핑은 지난 30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가능한 도농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쌀 소비촉진 및 우리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문재수 홈쇼핑 대표(왼쪽)가 김상수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쇼핑



롯데, 1박 2일 '여성 리더 워크숍' 개최

롯데 유통군은 1박 2일간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제2회 '롯데 유통군 여성 리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워크숍은 롯데 유통군 여성 리더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



한수원,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플러스'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0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갖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0대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전국 640곳의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차-WFP, 모빌리티 부문 파트너십 체결

(유엔세계식량계획)

전 세계 지속가능 발전 협력 장재훈 사장 “인류에 긍정적 영향”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 기구와 힘을 합친다.

현대자동차는 유엔 기구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 기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과 모빌리티 부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이날 파트너십 협약식에는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과 신디 매케인(Cindy McCain) WFP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파트너십을



장재훈(오른쪽) 현대차 사장과 신디 매케인 WFP 사무총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현대차그룹

통해 대부분 화석연료로 운영되는 유엔 업무 차량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돕고 WFP와 함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WFP에 전 세계 주요 사무소의 이동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오닉 5를 제공하고 해당 국가들의 전기차 운영 인프라

한화에너지, 바이오매스 기반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광양그린에너지 등 6개사 MOU

한화에너지등 6개 기업이 바이오매스 발전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한화에너지가 서울한화빌딩에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 기업 6개 사가 모여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광양그린에너지, 씨지앤대산전력, OCI SE, GS EPS, 포승그린파워, 한화에너지 등 6개 기업이 참여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포승그린파워 김욱 본부장, OCI SE 강준구 본부장, 씨지앤대산전력 김영수 소장, 한화에너지 송용식 전무, 광양그린에너지 김재기 본부장, GS EPS 황태규 상무가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너지

한다.

이들 기업은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바이오매스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제3자 인증 체계 구축 ▲유통 시장 건전화 ▲기술개발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10월 개정된 EU의 재생에너지지침과 같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협의회는 '제3자 인증 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EU의 SBP(Sustainable

를 구축하기 위한 기금도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조성된 기금을 WFP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절감 프로그램 EEP(Energy Efficiency Program)을 수행하는 데 사용해 전기차 배치 지역의 충전 및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전기차 기술에서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리더십과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아이오닉 5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해 전 세계의 식량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역할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e Biomass Program) 등을 준용하여 산업계 주도의 자발적, 선제적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국가공인 인증 체계, 글로벌 인증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정책 당국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 참여 기업은 흔히 알려진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넘어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 스스로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ds@

인사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콘텐츠실장 양형욱 ▲편집국장 김홍재

◆법무부 ◇고위공무원 나금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민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인사지원 부부장 박용식 ▲저축은행리스크관리 부장 강호성 ▲금융안정실 실장 조계황

◆한국금융연구원 ▲ 디지털금융연구실장 서병호 ▲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 장민 ▲ 인구변화대응연구센터장 서정호 ▲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 지만수 ▲ ESG연구센터장 이석호 ▲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현태 ▲ 금융안정연구센터 부센터장 김현열

부음

▲ 윤순이씨 별세, 정황근(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씨 모친상 = 30일, 천안하늘공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041-553-8000

▲진치재(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 부녀회장 겸 고문)씨 별세, 김창남(전 동아대 교수·전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씨 모친상, 김근화(여성자원고교 이사장)씨 시모상 = 30일 오후 3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30분, 02-2227-7569

LG전자 “‘우와한 라이프스 굿 연구소’ 놀러오세요”

25일까지 팝업존 운영

LG전자가 오는 8월 2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그라운드220’에서 LG 랩스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는 ‘우와한 라이프스 굿(Life’s Good) 연구소’ 팝업존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LG 랩스는 LG전자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소개하는 마케팅 플랫폼이다.

팝업존은 ▲맛과 향이 다른 두 가



우와한 라이프스 굿(Life's Good) 연구소 '듀오보(DUOBO)' 체험 공간. /LG전자

지의 캡슐을 한 번에 추출하는 캡슐 커피머신 '듀오보' ▲글램핑 고객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본보야지' ▲투명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탑재한 올인원 오디오 '듀크박스' 등 이색 제품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구소 테마로 꾸며진 이 팝업존은 콘셉트 제품이 개발되는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며 고객의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LG전자의 노력을 담았다.

/이혜민 기자 hyem@

LS전선, 대기업 최초 손자녀 출생 축하금 지급

LS전선이출산·육아제도 확대를 통해 가족친화경영을 강화한다.

LS전선은 오는 8월 1일부터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들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자녀 출생 축하금을 확대

한다.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75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 손자녀 2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손자녀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기업 중 LS전선이 처음이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남녀 직원 모두 출산휴가에 있어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적용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된다. 최대 2년간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삼복 더위는 장어 보양식으로



연 윤 열 의
푸드특독

복(伏)날은 일년 중 가장 더운 날을 뜻하며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을 삼복(三伏)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는 소서와 대서 사이 기간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도 하다. 냉방장치가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이 기간 동안 길고 긴 무더위를 견디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양식을 섭취함으로써 체력도 보충할 겸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 복날 만큼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우리나라 고유의 창발적 식문화였다.

2024년 올해는 초복 7월 15일, 중복 7월 25일, 말복이 8월 14일이다. 복(伏)이라는 글자는 사람(人)과 개(犬)를 합성한 상형문자로 무더위에 사람이 개처럼 앞드려 있는 모습을 뜻한다.

보양식(保養食)은 체력이 크게 고갈되었을 때 체력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음식을 말한다. 보양(保養)의 기본 개념은 부족한 체력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무항생제로 키운 무태장어를 강력 추천한다. 장어는 단백질 함량이 30%대에 이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레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학습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A가 최고기의 120배에 달하며, 비타민E가 풍부하여 노화방지 및 피부건강에도 효과적이다. 칼슘과 인, 철분, 레티놀, 비타민B1, B2, C, 나이아신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아이들의 성장과 허약체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장어는 민물장어부터 뱀장어에 이르기까지 종류 또한 다양하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해양수의 오염으로 자연산 장어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키운 양식장어가 안전성 검증을 받고 유통되고 있다.

대체로 양식 물고기는 자연산보다 지방과 수분이 많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낚시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리거나 갑판에 내동맹이쳐질 때 입게 되는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게 되므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한다.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이 많은 바다생선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

고기는 파이토플랑크톤이라는 미세한 바다식물에서 오메가-3지방산을 직·간접적으로 얻는다.

모든 물고기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을 조금밖에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류 대신 생선을 먹는다면 그만큼 동맥을 손상하는 혈중 콜레스테롤 낮아지며, 심장병 위험이 줄어든다.

바닷물고기의 살은 일반적으로 소고기나 송어와 거의 같은 비율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리아미노산 함유량은 3~10배에 이르며 특히 단맛이 나는 글리신과 감칠맛이 나는 글루탐산염이 풍부하다.

생선맛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APT(아데노신 3인산염)라는 화합물이다. 세포가 APT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면 이 APT는 일련의 더 작은 분자로 변형되는데 그 중 하나인 IMP(이노신1인산염)도 글루탐산염과 비슷한 감칠맛을 나타낸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있는 장어 요리로는 장어탕·뎡뎡·구이·회·샤브샤브·초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즐길 수 있다.

/ESG푸드테크 소사이터 대표

길 잃은 상생금융



나 유 리
(금융부)

“금리 하락은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에 낮아진 금리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입주물량, 주택거래량 등 다양한 요인으로도 가계대출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 하락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1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낮아진 금리가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가계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6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6%로 6개월 전과 비교해 0.56%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4.16%에서 3.71%로 0.44%p 내렸다.

그래서일까. 가계대출 잔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6조원으로 올해 3월을 제외하곤 매달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4월 5조원, 5월과 6월에 각각 6조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리인상으로 답했다. DSR 규제를 제대로 이행했고,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한 것만 확인시켜주면 될 것을 굳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점점이 곧 가계대출을 낮추라는 압박으로 들려, 대출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은행의 금리인상에도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단순히 대

출 금리때문 만은 아니라는 것을, 금융당국의 점검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은 오직 은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은행이 아니면 부동산일텐데, 부동산 회복기대감에 수요가 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상황은 결국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결국 금융당국의 압박에 높아진 금리로 주담대를 받아 더 비싸진 집을 사야한다.

금융당국이 늘 강조하는 상생은 서로 공존하면서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의 은행합박은 국민과의 상생을 위한 목적이 맞는가. 금융당국의 상생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다.

/yu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1일 (음 6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48년생 사양지심 즉 사양하거나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으로. 60년생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라. 72년생 오후 성공이 지척이니 힘내라. 84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먹는 잇는 법이니 서운해 마라.



37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마무리. 49년생 흙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61년생 모두 자신 탓이니 원망하지 마라. 73년생 뱀으로 부터 건강에 좋은 차를 선물 받는다. 85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려려 두는 것이 좋다.



38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맑은 해아 맛이다. 50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62년생 기다림은 너무 길고 만남은 짧다. 74년생 꽃동산에서 여윌 있게 노니는 격이다. 8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39년생 우울한 마음을 독서로 달래 본다. 51년생 뱀 중에 투자하라는 사람을 조심. 63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75년생 오늘 역마의 운이 있으니 어디든 여행. 87년생 부지런히 인내력을 보강해서 게으름을 탈출.



4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심란. 52년생 즐거움이 유래 통째로 상쾌한 하루. 64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76년생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협동과 소통을 함께. 88년생 오늘은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



41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53년생 혼자서 가고 마음대로 멈춘다. 65년생 오늘은 결과만큼 과장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 77년생 경험 부족으로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89년생 오전에 가정불화로 관재수가 따르니 조심.



42년생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한다. 54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온다. 66년생 오늘은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78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은 주지마라. 90년생 가족이 나의 가장 큰 협력자이니.



43년생 정성껏 기도로 관재수설을 면해보라. 55년생 유리한 정보를 얻어서 이득을 본다. 67년생 애정 문제는 당분간 삼각관계를 초래한다. 79년생 돼지꿈을 꾸었으니 뜻을 이루게 된다. 91년생 오늘은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44년생 가위눌림은 빙의가 원인일 수도. 56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니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68년생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기울이자. 80년생 오랜만에 경사가 겹치니 금상첨화. 92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무슨 일이나 시작하자.



45년생 오늘은 있는 그대로 현실에 만족하는 날. 57년생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69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81년생 불평 마라 세상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 93년생 부러진다면 굶히는 것도 인생사 아니겠는가.



46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8년생 태산이 되지 못해도 티끌을 모아라. 70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니 매사 조심. 82년생 새로운 계획은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 94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경계를.



47년생 자식이 큰 상을 받으니 낯아갈 듯. 59년생 친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니 경청. 71년생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만남을 주의. 83년생 이력서 낸 곳에서 곧 소식이 온다. 95년생 발생한 일에는 원인이 있기에 마련이니 누구를 탓하라.



김상회의四季

팔자를 바꾸려면

사주를 바꾸지 못해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팔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한 일을 쌓고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 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 먼저 복을 지으면 된다. 복을 짓지도 않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건 논리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복짓기는 선업을 쌓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절에 보시하는 일에도 착한 일 쌓기이다.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자손들이 유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업을 쌓는 분들이 있다. 선업으로 복이 아름답게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란다.

조상이 선업을 쌓으면 사주가 안 좋은 자손도 유복해질 수 있을까. 나쁜 일은 덜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긴다. 말하자면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이다. 선업을 쌓고 명당을 찾는 건 이렇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자손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유복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그렇게 한다. 자손들 팔자 바꾸는 게 선업이라면 자기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선업은 가장 빠르게 자신의 팔자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다. 쌓은 선업이 복된 운세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팔자를 바꾸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가 있다. 불교에서 기도는 선업을 쌓는 것과 통한다. 힘겨운 일에 부딪혔을 때 누구나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 그런 기도의 힘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팔자가 바뀐다는 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인연의 아름다움이 실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선업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를 찾아 정기적으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다. 선함이 쌓이고 일상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발원이 이루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9제

결란스도쿠110

주자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열도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5						1
				4			5	
	2				5			4
		3		5			7	
			3		9			
	6			8		1		
9			5					1
		2			1			
5						4		6

2	3		8					9
				3				
		4	2		5			3
	2				6			
8								1
		1					5	
3		8			6	1		
			7					
7				4		2		6

9	6	7	2	8	3	8	1	9
2	9	8	1	7	6	2	8	9
3	1	8	9	9	7	2	6	6
9	8	1	7	8	2	6	9	2
8	7	9	6	2	8	1	9	2
6	2	2	9	9	1	8	8	7
7	9	6	9	1	8	2	8	6
8	9	2	2	7	9	6	1	
1	2	2	8	6	9	9	7	8

9	8	2	1	7	8	9	6	2
7	6	8	8	9	2	1	9	
9	2	1	9	2	6	8	7	8
2	9	8	2	6	9	1	8	7
1	7	6	2	8	9	9	2	8
2	8	9	7	1	8	6	2	9
8	9	9	6	2	2	7	8	1
8	2	7	8	9	1	2	9	6
6	1	2	9	8	7	8	9	2

상반기 임금체불 390억 적발 “노동약자 위한 근로감독 강화”

1.2만여개 사업장서 3.6만건 적발
근로조건 명시, 금품체불 등 위반
건설현장 악대 불법하도급 문제도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1만2000여개 사업장에서 총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이중 272억원을 청산한 가운데 노동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주요 위반 현황은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 198건 등이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



전남 장성군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응해 5일까지 이틀에 걸쳐 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뉴시스

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전국 107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총 296건의 법 위반사항이 나왔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 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산·울산·경남 지

역에서 관광업이 발달한 특성을 고려해 노무관리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대형 카페 및 음식점 112곳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1361명의 임금 및 수당 4억6500만원의 체불을 확인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 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내년 2월 시행
분야별 자원 공급망 리스크 점검·분석
평시에도 핵심자원 비축 가능해져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핵심광물 등의 분야별 자원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분석하게 된다. 또 평시에도 핵심자원을 적정량 비축하고, 자원안보 위기시엔 4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

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자원안보기본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이다.

공급망 점검·분석은 석유와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핵심자원 평시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다.

산업부는 평시 핵심자원 비축은 공공부문 중심 상시비축 체제로, 위기 발생이나 발생 우려시엔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 비축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IAT, ‘K-태그’ 10주년 유럽 총회 개최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0일 오후(현지시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태그(K-TAG,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발족 10주년을 맞아 영국 코벤트리에서 유럽 지

역 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K-태그는 세계 22개국 618명의 해외 한인 공학자가 참여하는 모임으로 2014년 설립했다.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 파트너 발굴 및 연계, 기술 자문, 연구개발 과제 기

획, 후속 사업화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한만욱 재오스트리아 한인 과학기술자협회장을 비롯해 K-태그 유럽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유럽 8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를 운영중이며,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유레카에도 2009년부터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계란 값값이 거래, 60년만에 관행 없앤다

계란 표준거래계약서 활용 의무화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조사·발표

정부가 지난 1960년대 이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및 값값이 거래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표준거래계약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된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 간 협의로 마련됐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

격의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또 생산자·유통업체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송미령 장관, 상추·배 주산지 찾아 수급 점검

논산 찾아 상추 심기 진행상황 점검
나주 방문해 배 품목 수급안정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1일 오후 침수피해지역 중 한 곳인 충남 논산을 찾아 상추 생육 및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논산은 이달 초·중순 쏟아진 호우로 관내 농산물 재배면적의 35%(258헥타르·ha)가량이 침수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민·관·군의 공동 노력으로 논산, (전북) 익산 등 침수 지역에서 상추 다시 심기가 7월 중순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중순부터는 공급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 선별·출하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생육이 한창인 과수원을 찾아 작황과 여름철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최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배 품목의 수급안정에 각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전남 나주를 방문해 배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도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8월 중순부터 신고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배는 사과와 함께 우리나라 과일 중 연중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데, 지난해 생산감소로 지금까지 가격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산지저장 및 유통시설에서의 꾸준한 출하를 위해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혜택 확대

추가지원 횟수제한 폐지 등 지원 강화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한도 50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우선, 지난 5월 개정된 ‘평생직업능

력법 시행령’ 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이제는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한도 50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대환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사진 뉴시스
▲오슬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기체결함으로 인천 회항

▲‘유홍가 파고든 마약’ 호스트바 접객원·손님 무더기 송치
▲“남친 생겼냐” 전처와 그 애인 둔기 폭행…구속영장 신청



▲썬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2차피해 극심”
▲민주노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인사 참사” /사진 뉴시스



커피시장에 부는
디카페인 바람
“맛·건강 챙겨요”
L1



Life

에이피알
상반기 실적
역대 최대
L2



400조 쏟아부어도 저출생... “결혼·출산 긍정문화 만들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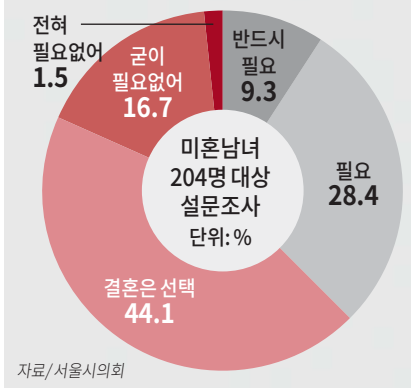
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응 보고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성평등 사회 구축해 불이익 없애야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반등을 꾀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 전원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의뢰해 마련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출산 축하금 일시 지급, 임·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영아양육수

미혼남녀들의 결혼 필요성



당 등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은 임신·출산·육아를 중심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4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 정책에 쏟아 부었음에도 출산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저출

생 대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결혼하는 커플의 증가 없이 출산을 늘

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면서 “혼인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제적 지원은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이 전국의 미혼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출산의지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4.1%가 ‘결혼은 선택이다’고 답했다. ‘결혼은 필요하다’(28.4%), ‘결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16.7%), ‘인생에서 결혼은 꼭 필요하다’(9.3%), ‘인생에서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1.5%)가 뒤를 이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31.4%가 ‘자녀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24.5%, ‘그저 그렇다’는 17.2%, ‘자녀는 꼭 필요하다’는 10.3%,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8.8%, ‘자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7.8%였다.

자녀계획이 없다고 한 이들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31.9%),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18.6%),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14.7%),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12.3%), ‘아이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11.8%)를 사유로 꼽았다.

연구진은 “공정한 성평등 사회를 구축해 결혼 및 임·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독박육아, 직장에서 승진 누락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오세훈, 베이징 시장과 회담... 교류확대 약속

도시 문제 해결 위한 교류의 장 열어
오세훈 “미래지향적 관계 이어가자”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0일 오후 5시 15분(현지 시각) 베이징시 인민정부청사에서 인용 베이징시장을 만나 경제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그동안 양 도시는 경제·문화·관광·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온 동반자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번 면담에서 두 시장은 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의 장을 열고, 우수 정책 공유 기회를 확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7월 30일 오후(현지 시각) 베이징시 인민정부청사에서 인용 베이징시장을 만나 미래지향적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

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청소년과 청년 교류 강화를 통해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미래에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경남도 산하 14개 공공기관 정규직 통합채용

내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 채용

경남도는 도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을 내년부터 통합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채용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재)경남무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람사르환경재단,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관광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마산의료원이다. 연구인력 중심 기관인 경남연구원, 향노화연구원은 제외됐다.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별 채용 시기, 절차 등이 상이해 응시자가 한눈에 채용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공공기관

별로 채용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남도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공공기관별 채용 절차 등 기준체계를 마련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용 시기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로 정례화되고, 경남도 주관으로 통합공고,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을 거친 뒤, 공공기관 주관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필기시험 문제는 공통과목인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채용직종에 따른 전공과목으로 치러지고, 총 100문항 출제에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성남시 뷰티기업, 베트남 1525만 달러 성과

‘베트남 코스모뷰티&비엠티뷰티쇼’
총 257건 수출상담 실적 달성

성남시는 지난 7월 25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코스모뷰티&비엠티뷰티쇼’에 관내 기업을 파견해 1525만 달러(약 211억원)수출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 코스모뷰티&비엠티뷰티쇼는 15회차를 맞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뷰티 무역박람회로, 동남아권 시장 진출의 주요 관문이다.

성남시 참가기업은 ▲미러로이드스

마트미러) ▲미네랄하우스(스킨케어) ▲센스코(스킨케어) ▲아이코스랩(스킨케어) ▲아마로스(기능성화장품) ▲아몽코스메틱(스킨케어) ▲셀바이셀(스킨케어) ▲브에노메디텍(스킨케어) 8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전문 벤더사 등을 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만나 총 257건, 상담액 152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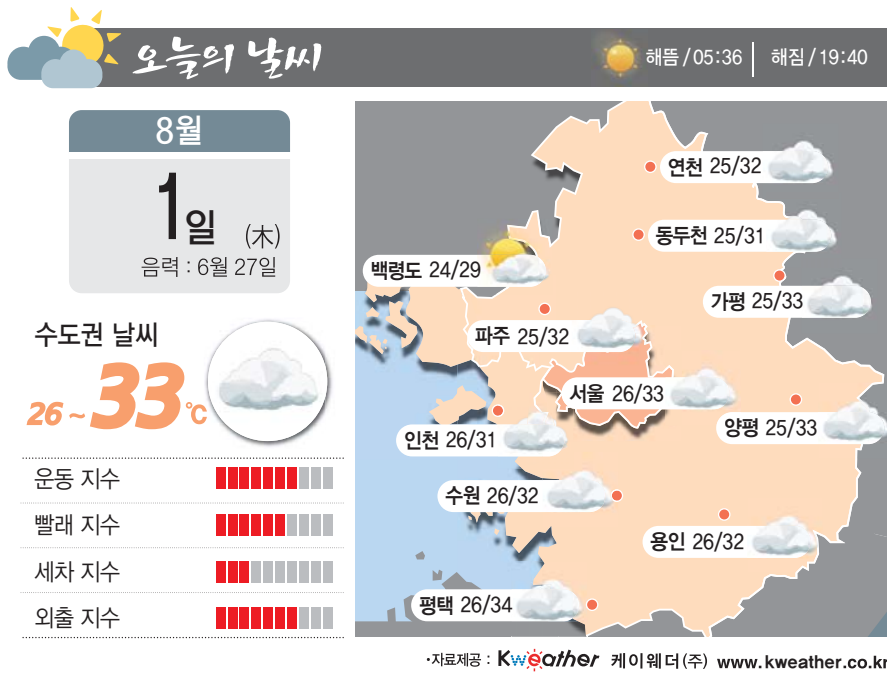
서울형 빅데이터 구축 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서울시는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사업을 위한 5개 시범자치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모델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표준화해 정책이나 사업 시행에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축제·행사 성과분석 모델’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모델’ 2가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국무 장관 “중러, 각자 이익 추구...北영향력 경쟁”
▲해리스, 보복공습한 이스라엘에 “방어할 권리 있다”

/사진 뉴스스

▲트럼프 머느리 “해리스는 쓰레기 봉지 모조품” 인신공격
▲EU, 부정선거 의혹 베네수엘라에 투명성 요구...“제재는 시기상조”



▲러시아, 베네수엘라 부정 대선 논란에 “패자는 결과 수용하라”
▲일본 정부, 전기·가스 보조 8월부터 재개...여당에서도 재정 부담 우려

/사진 뉴스스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안녕하세요, 배우 이영애입니다 제가 왜 KB GOLD & WISE *the* FIRST를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자산관리,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2년 전, *the FIRST*를 만나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KB 최고의 금융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제 자산을 위한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해 주고
저와 가족의 라이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덕분에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경험하고 신뢰하는 만큼
저 이영애는 여러분들께도
KB GOLD & WISE *the FIRST*를 추천합니다

KB GOLD & WISE *the FIRST* 고객*이영애*◆KB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the FIRST*는 압구정과 반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B GOLD & WISE *the* FIRST 특별한 자산관리 서비스

세무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각종 세무 관련 컨설팅**투자**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성과관리**부동산**보유 부동산 가치 분석 및
매각 타이밍 컨설팅**신탁**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증여신탁, 사후관리**금융자문**인수합병, 금융투자 자문,
가업 자문, 기업체 자문**법률자문**자산관리 업무 전반
법률 서비스 지원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084호(2024.04.26.), 유효기간 2024.04.26.~2024.12.31.까지